(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82 1982년 11월 17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Wednesday, November 17, 1982

NOV 17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집인 : 김운영
인쇄인 : 박정서
광고국장 : 송광호

한인교향악단 제5회 공연

" 행사보다 예술성 찾아야 "

박영대연주 호평받아

토론토에서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로서의 꿈을 키우고 있는 박영대(31)씨는 지난주말 한인교향악단과 협연, 많은 음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13일(토) 밤8시 라이어슨극장에서 있은 한인교향악단 제5회공연에서 토론토심포니바이올린주자이며 한인교향악단 악장인 박씨는 브루흐의 바이올린협주곡 1번G단조를 안정된 기교와 자신감있는 자세로 들려주어 정진하는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교향악단은 이날 브루흐외에 베토벤의 코리올란서곡, 모짤트의 교향곡 41번 <주피터>를 6백여 청중들에 선사했다. 2년전 창단된 교향악단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 피아니스트 백건우, 첼리스트 정명화등 한국이 낳은 세계적 연주가들과 협연을 가졌으며, 토론토에서 자라는 한국음악가와 연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교향악단의 연주회에 빠짐없이 참석해왔다는 H씨는 이날밤 교향악단과 박씨와의 협연은 서로가 에트닉 음악인이라는 핸디캡을 딛고 캐나다의 주요 음악가로서의 발돋움을 돕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데서 이번 연주회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주는 애국가와 오·캐나다 연주로 시작되었다. 코리올란서곡에 이어 바이올린을 든 박씨가 등장, 본격 연주회의 분위기로 접어들었다. 박씨는 브루흐의 힘있고도 슬픈 선률을 로맨틱하고 폭넓은 [illegible] 청중들의 가슴을 감싸안았다.

브루흐의 G단조협주곡은 멘델스존의 곡과 더불어 가장 널리 연주되는 바이올린 협주곡의 하나이다.

휴식시간에 이어 모짤트의 최후의 교향곡인 41번 <주피터>의 연주가 끝나자 일부 청중들이 앵콜을 불렀다.

지휘자가 두번째 재등장했을 때 무대뒤에서 5, 6살로 보이는 소녀가 지휘자에 꽃다발을 안겨준뒤 청중을 향해 사뿐히 치마를 들고 인사, 폭소와 더불어 박수를 받았다.

5회 연주회를 위해 40명의 정규단원과 약20명의 객원단원이 참가했으며, 악장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조·페퍼씨가 활약했다.

연주가 끝난 뒤 교향악단부이사장인 윤호섭씨는 제한된 연습시간에 비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음악가 안병원씨는 "지휘자 김승순씨이하 단원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한다. 박영대씨의 연주는 곱고 착실했다. 그러나 교향악단이 보다 발전하려면 우선 연습이 부족한 듯한 인상을 씻어주어야 하고, 한인 기성음악가들을 더 많이 교향악단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음악박사인 유희자씨는 "한인 오케스트라가 1개 에트닉·그룹의 발표회를 벗어나 캐나다사회의 음악단체로 자라고 싶은 비젼이 있다면 음악의 질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교향악단은 기초적인 면에서 너무나 자신감이 없이 불안했고, 특히 모짤트연주는 아름답지를 못했다. 박영대씨는 우아하고 탁월한 바이올린소리로 훌륭한 연주가로서의 재질을 충분히 과시했으며, 앞으로 그의 독주가로서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싶다"고 말했다.

교향악단은 제6회 공연으로 내년 3월20일 로이·톰슨·홀에서 한국 가곡의 밤을, 제7회 공연은 토론토교민 피아니스트 이화정씨와 베토벤협주곡 황제를 협연할 예정이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영대씨

훈련중인 F-16기 대전상공서 실종

(서울 16일=연합)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공군 소속 F-16전투기가 15일 대전근교 상공에서 훈련비행중 실종되었다고 주한미군사령부가 16일 발표했다.

미군사령부 대변인은 Theodore Harduvel Jr.대위가 조종한 이 전투기는 서울 남쪽165Km지점에서 실종되었다고 말했다.

실종비행기에 대한 수색작업이 미군구조대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동대변인은 덧붙였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워커톤모금 $2만

1일모금액 최고기록

19일 한인회관서 11명 시상

◆천중환 위원장

한인양로원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워커톤대회에서 모두 2,400명의 스폰서로부터 $20,158.70를 걷어 1일행사 모금으로서는 최고액을 올렸다.

15일밤 본사 사무실에서 있은 최종결산 결과 밝혀진 10스피드자전거 1대씩을 탈 참가자는 최다스폰서 확보자인 고종욱신부(253명), 이웅일군(109명), 송병현씨(70명), 서혜석씨(66명), 정승찬씨(60명)와 고액 모금자인 천중환씨($1,975), 김회삼씨($1,800), 김명규씨($600), 조남유목사($475), 정철기씨($470)가 선정됐다고 16일 천중환 양로원건립위원장이 밝혔다.

최고액모금과 아울러 최다스폰서를 확보한 고신부(모금액 $2,478)는 이미 자전거를 워커톤 최연소 참가자인 서동헌씨의 아들 서무경군에 양도했고, 최고액모금 5위내에도 끼어 자전거 두대를 타게 됐던 이웅일군(모금액 $691)과 서혜석씨도 각각 자전거를 최고액 모금순위 6, 7위인 조남유목사, 정철기씨에 양도할 뜻을 비쳐 모두 11명이 자전거를 타게 된 셈이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9일 하오7시 토론토한인회관에서 거행된다.

시상에서 아깝게 탈락된 사람 가운데는 50명으로부터 약정을 받은 엄아가다씨외에 정승찬씨, 조영희씨, 하주용씨, 이수영씨등도 포함된다. 이들은 약정자는 많았으나 모금액 순위에서 탈락됐다.

호화로운 장소에서 비싼 저녁과 흥겨운 춤으로 모금파티를 가진 것보다 건강하고 건전한 것같아 참여했다는 한 참가자는 약정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일도 수월치 않았다면서 그러나 교민사회에서 이같이 뜻있는 일에 많은 교민이 참여했다는 의의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즈멘알파클럽이 주동이 된 한인양로원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천중환, 이사장 김명규)는 이 기금증가로 양로원건립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상자들의 약정자수및 모금액은 다음과 같다.

성명	약정자수(순위)	모금액(순위)
이웅일	109명(2)	$691,00(4)
고종욱	253명(1)	$2,478,00(1)
서혜석	66명(4)	$646,50(5)
천중환		$1,975,00(2)
김회삼	31명(7)	$1,800,00(3)
정철기	42명(6)	$470,00(8)
조남유	25명	$475,00(7)
김명규	25명	$600,00(6)
[illegible]상선	8명	$375,00(9)
정승찬	60명(5)	$269,00(10)
송병현	70명(3)	$215,00(11)

김득구선수 모친 미국으로

안락사 결정할듯, 회복 불가능

(서울 16일=연합) 13일밤 라스베가스의 시저스·팔레스에서 열린 WBA라이트급 참피온 타이틀전에서 참피온 맨시니의 강타에 쓰러진후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중인 김득구(23)선수의 어머니와 형이 대한항공의 도움으로 급거 미국으로 출발했다.

어머니 양신녀씨와 큰형 김군영(33)씨는 미국행 항공료를 부담할 수 없자 대한항공이 제공한 무료탑승권으로 16일밤 김포를 떠났다. 어머니 양씨는 탑승에 앞서 아들은 이 경기가 "죽기아니면 살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선수를 수술한 헤메그렌신경외과의사는 "소생가망이 없다"면서 16일 현재 움직이는 것은 이름을 불렀을때 컴퓨터에 나타나는 귀신경뿐이며 다른신경은 전혀 활동이 없다고 말했다. 16일까지 거의 모든 시험을 끝낸 병원당국은 인공호흡기를 차단, 김선수의 영면을 앞당기기 위한 회의를 하고있다.

인공호흡의 차단은 일단 김선수어머니가 도착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병원당국은 말했다.

한편 미국전국과 한국까지 위성중계됐던 이 경기는 12회이후 기술문제로 한국중계방송이 중단돼 김선수의 어머니는 아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못 보았다.

◆클레믈린 권력층 일렬로 도열: 소련공산당 서기장으로 새로 선출된 유리·안드로포브(중앙)가 「붉은 광장」의 레닌묘에서 거행된 브레즈네프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하는동안 소련공산당 핵심멤버들이 좌우로 나란히 서있다.

(좌로부터)카자크스탄 공산당총책 D.A. 쿠나예브, 우크라이나 공산당총책 브라디미르·쉐르빗스키, 국방상 드미트리·우스티노브, 신임 공산당서기장 안드로포브, 수상 니코라이·티코노브, 대통령후보 콘스탄틴·체르넨크, 외상 안드레·그로미코, 모스코바 공산당 총책 빅토·바시비리치·그리쉰, 농업상 미카일·고르바체브, 장례식이 끝난후 안드로포브서기장은 미국에서 조문사절로 온 죠지·부시부통령및 죠지·슐츠국무장관과 만났다.

SUNLIFE
백용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화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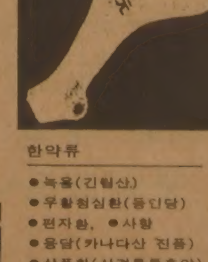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다이아몬드·순금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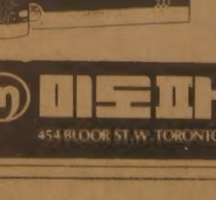
오늘의 예금금리(10. 19부터)			
한인신용조합			
기간	[illegible]정기예금	[illegible]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1.5%		10.25%
90일	12%		10.75%
180일	12%	11.75%	10.75%
365일	12%	11.75%	10.75%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한인신용조합 Tel: 533-9387~8

다량입하
비타민, 한약 세일
건강한 생활

비타민류
● 종합비타민
● 비타민-E
● 간유구
● 간장보호제
● 지브랄-T
● 로얄제리, 원액
※새로 나온 알로베라 비타민
상어간기름 비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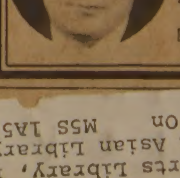
한약류
● 녹용(긴형산)
● 우황청심환(동인당)
● 편자환, ● 사향
● 웅담(카나다산 진품)
● 삼풍환(신경통특효약)
● 기혈환, 용각산, 구심등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특별할인봉사>
모국 방문단 월 1회 단체출발
11월21일
12월26일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 · 2156
R) 492-7525 김 창 범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화분
■ Cut FLOWER ■ HANGING PLANT.



☎: 465-8167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대표 곽 덕열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메트로경찰조직 세분화

효율적인 대민봉사위한 시도

메트로 토론토경찰은 보다 효율적인 대민봉사를 위해 조직을 세분하고 언론과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등 내년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활동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본사를 방문한 메트로경찰의 리차드·콜레트경위는 현재의 각 디비젼(Division)을 12개내지 13개 존(Zone)으로 세분화, 각 존별로 담당경찰을 두어 그 지역의 특성을 보다 잘 파악하게 하는 새로운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존·시스템의 이점은 일정지역에서 최소 1년내지 1년반이상 근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동태와 사업체 및 범죄의 성격을 잘 파악

◆본사를 방문한 리차드·콜레트경위

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꾀하는데 있다.

총5,400명의 메트로경찰력의 조직및 활동양상을 수정한 것은 지난 10년간 메트로경찰을 검토해온 히클링·앤드·존스톤 상담전문회사(Hickling & Johnston Consulting Firm)가 제의한 새 메트로경찰 운영방안을 근거로 한 것이다.

새 운영방안에 따르면 또 내년초부터 군소사건에 관한 보고는 경찰이 일일이 현장에 출동하기 보다 전화로 보고를 받게 된다. 보험회사에 보고하기 위한 가벼운 사고등이 군소사건에 속한다.

메트로경찰은 또 언론기관과 경찰간의 보다 원활한 협조를 위해 지금까지의 홍보담당경찰관(Information officer)제도를 없애고, 메트로전역을 5개 지구(Distvice)로 나누어 각 지구에 언론전담관을 1명씩 두기로 결정했다.

리차드·콜레트경위가 밝힌 메트로경찰의 계급순위와 경찰력수, 대체의 근무연한등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하급부터이다.

Police Constables 약700명－초년경찰관

Sargeant 약150명－7~13년 복무

Staff Sargeant 약100명－16년정도

Inspector 60~70명, Staff Inspector 60~70명－17년이상 복무

Super Intendent 7~8명, Staff Intendent 7~8명, Deputy Chief 3명－개인별로 많이 다름.

Chief 1명－30년이상 복무. 임기가 없이 은퇴시까지 머무를 수 있다.

"꿈이계시"받은 한국청년

미스·프랑스와 결혼

(서울 16일=연합) 80년도 미스·프랑스였던 브리질·쇼켓(Brigill Choquet)(26)양이 한국청년과 2년간에 걸친 달콤한 동화와도 같은 로맨스끝에 곧 결혼하게 된다.

서울에서 열렸던 1980년도 미스·유니버스대회에 미스·프랑스로 참가했던 쇼켓양은 오는27일 불란저의 중부도시 알리에에서 유채성(32)씨와 결혼식을 거행한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유씨는 기자와 만나 16세때 꿈에서 훗날 성인이 되면 금발머리와 노란눈을 가진 미녀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전하고 그이후 학교를 중단, 꿈에 나타난 서양미인을 찾아 나섰다고 말했다.

유씨가 꿈에 그리던 여인을 찾아 헤멘지 유씨는 14년 째인 80년 서울세종회관에서 거행된 미스·유니버스대회에서 불란서대표로 출전한 쇼켓양을 보는 순간 그 여자야말로 자기가 찾아다니던 바로 그 미녀라고 생각, 말을 걸기위해 무대뒤로 가려고 했으나 경비가 너무심해 접근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그후 쇼켓양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자기와 쇼켓양은 지구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느님에 의해 결혼하기로 운명지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유럽의 기사의 옷과 같은 의상을 즐겨입는 유씨는 계시문학에 심취되어 있다. 이미 「마스(군신)와 비너스(사랑의 여신)」라는 소설을 내기도한 유씨는 이 소설에서 자신을 마스로 쇼켓양을 비너스로 비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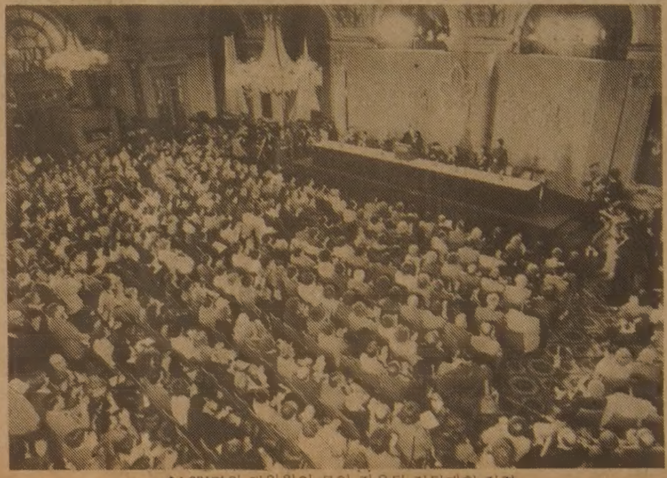
유씨와 쇼켓양의 부모들은 이들의 결혼에 만족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 바로 잡읍니다◆

◇최용근씨

16일자판 2면의 사격대회 기사 사진설명중 우승자 최용근씨는 우측이었기에 정정합니다.

좌측은 우승트로피를 수여하고 있는 사격협회 회장직무대리 한희정씨였읍니다.



◆1,981명의 대의원이 모인 자유당 전당대회 전경

-----제5계절

참는 자의 복

이 필주 (토론토순복음교회 목사)

날이 갈수록 생존경쟁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자면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참으로 많다. 그중에도 인간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참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참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참을 수 없는 중에 참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이 드는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 참는 것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고, 범사가 형통하지 못한다. 참는다는 것이 인간 누구에게나 그토록 고통스런 것이 없지만 이 참는 것을 잘할 줄 알아야 인격자가 되고, 인생의 승자가 된다.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의 일생은 한마디로 참는 생활이었다. 예수님이야 말로 털끝만한 죄나 잘못도 없으시면서도 하찮은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찢기시며, 끝내는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틀 위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기까지 참아주신 분이 아닌가!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셔서 말씀 한마디면 열두명이 더 되는 천사도 동원시킬 수 있는 분이지만 인류를 사랑하사 참아주신 분이 아닌가!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왕이시며, 인생의 길과 진리가 되신 것이다.

* *

인간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참아야 할일이 많은가! 그러나 이 참아야할 일을 참지 못함으로 생기는 비극과 불행이 또 얼마나 많은가!

인생살이는 언제나 평탄할 수만은 없다. 내게 기분이 좋고 웃을 일만 다가오지는 않는다.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도 가정에서, 부부생활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얼마나 참아야할 일들이 생기는가!

행복한 부부가 되기까지는 부부간에 서로가 얼마나 참아야 하며, 형제가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려면 이해하고 양보하고 얼마나 참아야 하며, 부모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성공시키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참아야 하는가!

한 가정이나 단체나 어느 집단이나 교회나 화평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원 각자가 얼마나 참아야 하는가!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고, 달인이 되고, 위인이 되는 것은 아무나 되지 못한다. 참아야할 것을 얼마나 참을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사느냐에 인생의 판도나 상황이 달라진다. 참아야 될 것을 참는 것은 시세 당장에 그토록 씁쓰름한 것이 없지만 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입에 단 것이다.

* *

밀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참을 줄 아는 사람만이 많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 말했으며, 성경에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전 13장에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다.

인간의 행복이란 거저 굴러 들어오는 떡이나 요물이 결코 아니다. 참아야할 것을 참을 줄 아는(댓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만이 행복의 진미를 조금이라도 더 맛볼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콩볶듯이 신경과민이 되어 뛰고 달리는 이민현장에서 우리는 좀더 여유있고 느긋한 마음으로 부부간에, 형제간에, 동료와 친구간에, 이웃간에, 교우간에,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참아야할 것을 참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밝고 명랑한 분위기 조성을 힘써봄이 우리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

밍크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밍크 ●폭스 ●세블 ●라쿤
록키모피 MR. 정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0189

〈 자유당 전당대회 참관기〉

이태은 (본보 오타와지국장 : 자유당대의원)

60년대에 이민문호를 본격적으로 개방했던 자유당은 복합문화정책을 추구, 소수민족그룹에 속한 이민자들에게는 자유당의 진로와 정책이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인기는 잃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트루도수상이 집권하는 자유당 전당대회를 통해 앞날의 정치기상도를 알아보자.

흥분과 열기로 가득찼던 샤토로리에호텔에서 5일간의 자유당 전당대회도 이제 그 막을 내렸다.

「의사당」가를 중심으로 웰링턴가와 다운타운 중심부에 회장후보들의 대형간판, 에드벌룬, 벽보, 선전팜플렛등이 길거리를 어지럽힌다.

11월3일부터 시작, 전국에서 모여든 정치꾼들로 호텔마다 초만원을 이루고, 이곳저곳에서 자파 대의원 확보를 위한 리셉숀과 디너초청이 러시를 이룬다.

연방정부·청사 각장관실 거의가 대의원 초청 리셉션 장소로 제공되고, 또 장관이 특정후보를 직접 지원도 한다.

정확하게 계산된 전국대의원수는 1,981명이다.(자동직 연방국회 상·하의원 포함)

◉각지역 후보자(알트니트) 149명.(대의원 유고시 자동승계후보자)

◆크뢴치엥 장관(왼쪽에서 2번째)이 놈·매크로드당화장 후보 캠페인로보트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왼쪽끝이 이태은지국장.

총3,500명, $1억 짜리대회

◉등록참관인: 152명

◉등록방청객: 300여명

◉사무원등: 600여명

◉기자단방청객: 481명

총인원이 무려 3,500명이 넘으며 비용도 최소 1억달러 이상이 소모된 맘모스대회다.

각주 또는 도시별로 세분한 대의원수는 절대기밀이다. 대회장내에는 등록된 기자단과 옵서버($30,-징수)이외엔 출입금지된다.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라도 반드시 대의원표지의 하얀색 카드목걸이를 해야하며 방청객과 옵서버는 핑크색카드, 기자단카드는 노랑색카드로 구분하고, 경비와 경호는 민간보호회사(Security Service Co.)가 전담, 경찰은 그림자도 볼수 없다.

호텔입구 좌우로 산더미처럼 쌓인 연방정부 각부처 참고책자 유인물등이 전시되고, 필요한 자료를 신청하면 그즉시 무료제공되는 가설도서관도 설치됐다. 각호텔로 연결되는 대의원 픽업버스가 매시간마다 순회되고, 또 대의원 가족을 위한 탁아소도 있다. 또 전국을 연결하는 「트랜스콤뮤니케이숀」메세지센터가 24시간 운용, 전화호출자는 메세지센터 TV화면에서 계속 방영된다.

정보센타 주위에는 회장후보자들의 로보트 캠페인도 전개, 후보자 「로보트」에게 무슨 질문이든지 던지면 즉시로 답변, 벌써 로보트시대가 도래했음을 실감한다.

얼핏 보아서 이번 전당대회가 수상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은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정기총회로서 수상의 신임도를 측정하고, 당의 정책을 정부시책이나 법에 규정하도록 한다.

각 위원회별 워크숍을 가지며, 대회 마지막날에 당의장을 뽑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전당대회를 날자별로 요약하면,

11월3일－전국 청년전당대회

11월4일에는 부녀회대회

11월5일 제3일째 전체대회 ※수상개회축사

11월6일 제4일째 전체대회 (전부서장관 출석 질의응답) ○당의장 후보자 정견발표

11월7일 당의장 투표 ※수상폐회축사 (계 속)

사은대매출

인사말씀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서울식품 동부를 인수받은지 어언 1년이 되었읍니다. 그동안 교민여러분께서 성원해주시고 지도해주신 결과, 저희 식품점은 날로 발전을 거듭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닥아오는 년말을 맞아 교민여러분께 봉사코자 한국에서 많은 상품을 구입해서 봉사가격으로 판매코자 하오니 1차 왕림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

< 한국에서···>
□신간서적(각종 소설류, 베스트셀러) 많이 들여 왔읍니다. * 대본료(새책)1주일 2불
□각종 카셑 TAPE를 대량 구비했읍니다. ~~$11.00~~➡$6.50
□한국인형(크리스마스 선물용)스페샬
□밍크담요 ~~$95~~➡$55

서울식품 동부
중공산 조기(중간치) SPECIAL 판매중입니다.
(B)291－8317 367 PITFIELD RD. 대표 : 이 상수

20일 태권도선수권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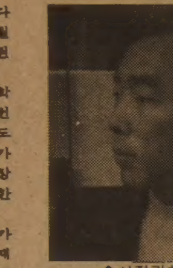
협회주최 · 실협후원, 30여 도장출전

오는 20일 금년도 캐나다 태권인들의 총결산이 될 제5회 캐나다태권도선수권대회가 오는 20일 열린다.

이날 정오부터 톡대학 체육관에서 거행될 이번 선수권대회는 한인태권도협회(회장 서정길 7단)가 주최, 전국의 30여개 도장 6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금년에는 실업인협회가 적극 후원, 토론토에 소재한 각 한인상점들을 통해 입장권을 일제히 판매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토론토 한인도장 10여개를 비롯, 몬트리얼, 위니펙, 오타와, 키치너, 런던 등지의 총 30여개 도장이 참가할 것으로 주최측은 추산하고 있다.



◆서정길회장

그동안 캐나다에 태권도가 전파된지 근 20년, 한인 사범들을 통해 태권도를 배운 캐네디안만도 그 수가 1백만명에 달한다는 서회장은 "코리아하면 태권도, 태권도하면 코리아라고 할 정도로 캐나다 속에 태권도이미지가 자라왔다"고 말했다.

서회장은 태권도인들의 노력에 비해 교민들의 성원이 아쉽던 차에 실협에서 적극 지원, 한인소매상들을 통해 입장권을 판매함으로써 입장객이 많이 동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카드용

우표값 30¢로 인상

금년 크리스마스·카드의 우표값은 작년의 배가 들게 되었다.

작년에는 미봉함 크리스마스·카드의 경우 15센트의 우표만 붙이면 됐던 것이 금년에는 1종 우편물과 같이 30센트짜리 우표를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캐나다우편공사의 마이클·워렌사장은 14일 CFRB라디오의 〈토의합시다〉 프로에 출연, 연하장 제작인들이 크리스마스·카드 특별할인요금의 부활을 위해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 결과 내년도에는 할인요금이 다시 부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교민동정

◆김창우(초대 토론토한인베타와이즈맨클럽 회장)= 건강사정으로 LA 이주중, 지난 11일밤 따님댁(사위 배형도씨) 방문겸 친지들을 만나보기 위해 토론토 도착. 그간 신경통등 기후조건이 좋아 건강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사할로프「회고록」

KGB요원이 탈취

(모스크바—외신) 최근 소련의 반체제 물리학자 안드레이·사할로프박사(60)는 지난 10월11일, 유형지인 골리키시 시내에서 소련국가보안위원회(KGB) 요원으로 보이는 남자의 마취제 살포를 받아 수년간 집필해온 회상록, 일기등을 탈취당했다고 부인을 통해 밝혔다.

◆사할로프박사

사할로프박사는 이에 항의, 자기의 회상록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페도르체크 KGB의장에게 보내는 한편, 모스크바로 귀가한 아내 엘레나·본네르여사를 통해 그 편지사본을 서방측 보도진에 밝혔다.

그의 편지에 의하면 사건이 일어난 시각, 사할로프박사는 혼자 자기 승용차에 남아 기차표사러 간 엘레나부인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낯선 사내가 다가와 무엇을 묻는체 하면서 약물을 차내에 뿌려, 박사가 몽롱해진 사이에 차의 뒷창유리가 깨어지고, 운전석 뒷자리에 놓아둔 서류가방이 없어졌다.

탈취당한 서류가방에는 과거 4년반동안에 걸쳐 기록한 자필수기및 타자한 회상록 원고 1천400매, 일기책 6권, 중요편지등이 들어 있으며, 카메라, 래디오, 저금통장등도 포함되어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사할로프박사는 「소련국가에 대한 반역행위」에 종사했다는 혐의로 80년1월, 나라로 부터 받은 모든 칭호를 박탈당하고, 모스크바동쪽 400킬로, 불가강가의 골리키시로 국내유형 처분을 당하고 있다.

사할로프박사가 이번 사건을 KGB의 소행으로 단정하는 근거는, 만약 단순한 강도사건이라면 자기를 늘 미행하고 있는 KGB요원이 모를리 없겠기 때문이다.

◁사람을 찾음▷

올해 서울서 토론토로 이민온 신수항씨(성남고교 출신)를 동창회가 찾고 있다.

본인이나 신씨의 거처를 아는 이는 아래로 연락 바라고 있다.

연락처:533-2361 (김영철)

이혼챔피언

리즈 테일러

(뉴욕) 미국의 정상급 여배우 엘리자베스·테일러는 6년 가까이 계속된 버지니어주 출신 존·워너상원위원(공화당)파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최근 이혼했다. 두 사람은 1년여전부터 별거해 왔다.

배우생활 40년을 맞은 티즈·테일러는 은막의 여왕으로 군림하는 한편, 이혼경력도 톱크라스!

그녀는 1950년 호텔왕 콘라드·힐톤의 아들과 결혼한 것이 첫번이고, 그후 배우인 마이클·와일딩, 프로듀서 마이켈·토드, 가수 에디·피셔, 배우 리처드·버튼과 두번 결혼하여 모두 4명의 자녀를 낳았다.

리즈는 내년봄, 리처드·버튼과 브로드웨이의 무대극에 공동주연으로 출연예정으로 있다. 극이름은 「프라이베이트·라이프」

◆리즈·테일러(우)와 워너의원

치 과 개 업

하기 장소에 새로이 치과를 개업하고 교민 여러분에게 성심껏 봉사하겠사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치과의사 윤 중 태 올림

☎ : 925—2408

주소 : 360 Bloor St. W. #307
(1 Block W. of Spadina)
(지하에 파킹장이 있읍니다)

시간 : 월~금9:00~6:00 토9:00~3:00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10>

29분의 1 ⑮

옥자를 경찰서 족치면 모든게 들통

여자는 퉁명스럽게 옥자를 불렀다.

잠시 후 옥자가 나왔다.

「누구세요?」

「응, 나야. 혜민이 엄마야.」

「어머, 아줌마!」

반색을 한다.

「혜민이한테 보낸 편지 잘 받았다. 어떻게 지내고 있니?」

「네, 전 잘있어요. 아줌마는 어떠세요?」

얼마나 반가와하는지 목소리까지 떨리고 있다.

「응, 난 잘 있어.」

「아파트로 이사하셨다면서요?」

「응, 그래.」

「로와르리지 쪽에 괜찮해요.」

「아니, 괜찮아.」

처음 그녀가 가정부로 들어왔을 때는 그야말로 시골뜨기가 줄줄 흐르는 촌놈의 처녀 그대로였다. 행동도 사투리가 심해 [illegible]을 말하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투리도 많이 없어지고 제법 때국을 벗어 서울 처녀처럼 매끄럽게 이야기할줄도 알고 있었다.

「다름이 아니고…앞으로 우리집에 전화나 편지 같은 거 하지 마.」

「아니, 예…」

옥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다.

「글쎄, 시키는대로 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화나 편지 같은 거 일체 하지마.」

「혜민이한테도 하면 안돼나요?」

「안 돼. 우리 집에 있었던 거 잊어버려. 자꾸 미련을 가지고 그러면 안돼. 알아 듣겠지?」

「네, 알았어유.」

朴 男 그림

[illegible]이 축자 사투리가 나온다.

「그전 그렇고 혹시 어떤 남자가 너 찾아오지 않았니?」

「아아니요.」

「너 찾아와서 우리 집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어?」

「아아니요. 그런 일 없었어라.」

「혹시 말이야, 누가 와서 묻거들랑 일체 모른다고해. 꼭 그래야 한다. 내 말 알았지?」

「네, 알았어유. 그런디 집에 무슨 일이 있어유?」

「넌 알 필요 없어. 내가 시키는대로 해야한다. 알아들었지?」

신신당부를 하고나서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이옥자야말로 모세를 본 유일한 목격자였다. 만일 형사가 옥자를 찾치면 그녀는 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자는 서성거리다가 가정부를 불렀다.

「아까 그 사람, 나 오기 전에 여기 왔었니?」

「네, 여러 번이 왔었어요.」

「여러 사람이?」

「네, 와서 막 여기저기 살피어요. 무서워서 혼났어요.」

「뭘 살피던?」

「카피트랑이, 만져보고 그랬어유.」

언느새 나왔는지 아이가 대답했다. 그녀는 아들을 방으로 들여보냈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 1—385—1485

서부지점 ☎ : 243—9544

三國志 503

글·高羽榮·그림

휘미리 · 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 · (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 오전10시~오후7시
토 : 오전11시~오후3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성균관대학교 SUNG KYUN KWAN UNIVERSITY 1895

成均館大学校 토론토 동문회

82년도 년말파티및 정기총회

82년도 년말파티및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가족동반하시어 동문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년말파티및 정기총회

❖ 일 시 : 1982년12월17일(금) 오후7시
❖ 장 소 : 18 FAIRHILL CRE. (빅토리아 팍×로렌스)
❖ 연락처 : 김영창(B)252—1773, (R)883—4550
권병구 (B)449—1871, (R)447—6345

회장 : 김영태 부회장 : 김경식 총무 : 김영창 회계 : 유근유
문과대학 : 호해용 법과대학 : 이인덕
상경대학 : 이춘호 사범대학 : 이양규
이과대학 : 김춘락 약학대학 : 심상철

成大토론토 동창회장 김 영 태

한국일보

非同盟國, 한국派兵 찬성

對策班편성 본격檢討
政府입장 조속히決定

外務部

레바논정부로부터 派兵요청을 받은 정부는 한국군의 派兵에 관해 아랍지역을 포함한 상당수의 非同盟국가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派兵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 가능한 가까운 시일안에 派兵요청에대한 정부입장을 결정할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외무부는 지난6일 레바논 정부로부터 한국군의 多國籍평화유지군참여 요청을 받은 뒤 아랍지역을 포함한 비동맹국가및 서방국駐在 공관에 한국군파견에 관한 반응을타진토록 긴급훈령을 내렸는데 이날현재 들어온 각국의보고 내용은 한국군 파견에 대한 찬성반응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현재 수십개국으로부터 반응이 들어온것으로안다』면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外軍의 조속한철수를 희망하고있는 레바논정부의 노력에 한국측이 협력하는것은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어 『이들국가들은 中東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이 레바논으로 부터 派兵요청을 받은것은 국제적지위가 그만큼 높아졌기때문으로 풀이하고있으며 한국군이라면 레바논에서 多國籍평화 유지군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한국군 파견에 호의적인반응을표시한 국가들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요르단을 비롯한 다수의 中東國家와 나이지리아, 세네갈등레바논에 유엔주둔군을 파견한 非同盟 아프리카 국가들및아시아와 유럽의 親서방국가들이 포함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레바논사태에 이해관계를 갖고있는 국가들의반응을 종합검토한뒤 各政黨과도 긴밀한 협조를 가진다는 방침에따라 李範錫외무장관은 이날하오 李載灐 民正黨대표위원과 金鍾哲국민당총재를 각각 예방하고 레바논의 한국군 파병요청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전상황등을 설명했다.

한편 외무부는 한국군의 레바논 파견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위해 이날 孔魯明차관보를 팀長으로하는 對策班을 편성,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이대책반은 李昌範中東局長을 포함한 관련 4개局국장과 레바논에 근무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在外공관으로부터 보고되는 각국의 반응을 분석하고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의 한관계자는 『대책반은 어디까지나 외무부내의 실무작업기구에 불과할뿐 여기서 한국군 파견여부를 결정하는것은 아니다』라고 이기구의 성격을 설명했다.

국회 外務·國防委 來週소집 검토

국회는 레바논의 한국군 派兵요청문제를 다루기위해 外務委·國防委를 열거나 兩委 연석회의 소집을 신중히 검토하고있다.

「派兵得失」 면밀分析
李外務 規模·시기 추측일뿐

李範錫외무장관은 12일 레바논派兵문제에대해 『현재까지 이문제에대한 정부입장은 긍정적도 아닌 부정적도아닌 상태로 보며 派兵여부를 결정한바 없다』고 밝힌뒤 『레바논파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파병으로 인한 得失面등이 국내외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날 국회예결위제1분과위에서 任哲淳(民正)·朴寬用·金魯植(이상民韓) 林德圭의원들로부터 『派兵여부에대한정부의명확한입장을 밝히라』는질의에대해 이같이 밝히고 『派兵문제는 전세계 여러나라가 어떻게생각하는지를 우리외교망을 통해알아본뒤 이정보를기초로 파병여부를 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보도된 한국군 派兵에 관한 규모나 시기등은 신문의 추측일뿐』이라고 말하고 『레바논정부의 정식요구는 파병을 해주기 바란다는 요청뿐』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번미국무성차관보의 訪韓은 레바논파병과는 무관한것이며 자신도 이문제와관련, 訪美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브레즈네프의 死後에따른 북괴와의관계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등에관해 『아직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美 國家安保회의의 시거補佐官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12일 상오 美국가안보회의의 개스톤·시거先任보좌관(아시아지역담당)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사진〉 이 자리에는 李範錫외무장관과 워커駐韓美대사가 배석했다.

在日同胞낀 間諜 13명검거

安企部발표 萬景峰號서 교육받고 入北까지

4명拘束

學園·勞組소요등 편승 流言蜚語 유포

◇梁達珍 ◇梁定二 ◇金榮俊 ◇金榮秋 ◇金榮姬

국가 안전기획부는 12일 고정간첩검거임무를 띠고 재일동포 모국방문단에 끼어 국내에 침투했던 북괴 검열간첩 梁達珍(65·일본 東京都荒川區町屋·음식점 漢江苑경영)과 고정간첩 金榮姬(26·여·서울江東區岩寺3洞江東아파트41동410호)등 일당 13명을 검거하고 이들중 金榮姬, 梁定二(60·서울鍾路區昌信2洞658) 金榮秋(33·〃·서적외판원) 金榮俊(34·사우디 파견근로자·서울江東區岩寺洞 江東아파트41동410호)등 4명을 간첩및 국가보안법 위반등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발표했다.

安企部는 검열간첩 梁達珍은 35년만에 모국을 찾아온 재일동포로서 자신의 죄를갚고 뉘우치고있어서 관용을베풀고 조국을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기로했으며 개전의정이 뚜렷한 다른8명도 훈방했다고 밝혔다.

간첩들의 범죄사실은 다음과같다.

▲梁達珍=71년~76년사이 萬景峰호에서 간첩교육을 받았다. 73년부터 취업차 渡日한 조카 金榮姬, 榮秋, 榮俊등 3명과 여동생 梁定二등을 차례로 포섭, 金榮姬는 78년6월 북괴에 보내간첩교육을받게하고 梁등3명은 萬景峰호에서 수시 교육을 시켜국내에 고정간첩으로 침투시켰다.

▲金榮姬=77년부터 북괴공작거점책인 조총련 상공회부이사장 金振聲과 동거하며 간첩교육을 받은뒤 79년1월 日貨50만엔의 공작금을 갖고 국내에 잠입, 江陵 注文津 襄陽 仁川등 전후방의 군경비상황을 탐지보고해 왔다.

▲梁定二=79년1월 日貨40만엔의 공작금을받아 서울昌信洞 모교회 권찰(眷察)로 침투, 학원·노조 소요등에 편승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며 민심교란을해왔다.

北傀, 對南공작5人特委 신설
朝總聯통한 迂廻침투 警戒를

「당부의말」

安企部는 북괴가 최근 金正日체제를 구축하기위해 대남모략과 간첩침투로 우리의 안정기반을 파괴하기에 혈안이 되어있다고 밝히고 북괴의 침투수법은성별, 직업, 나이에 관계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광역화되고있다고 지적했다.

安企部는 또 북괴가 최근 「對南공작5人委」등 기구를 만들어 대남침투부대 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총련을 비롯한 해외불순분자를 통한 우회침투를 늘리고있다고 밝히고 국민들은 대공자세를가다듬자고당부했다.

"金文起, 死六臣아니다"

國史편찬위 確定…「5년論爭」일단락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李鉉淙)는 11일하오 위원회를 열고 한동안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死六臣문제를 논의한끝에 종래의 死六臣구성을 친바없음을재확인, 成三問, 朴彭年, 李塏, 河緯地, 柳誠源, 俞應孚로 死六臣을 확정했다. 이로써 「俞應孚·金文起 사육신논쟁」은 5년만에 일단락됐다.

위원회는 金文起의 가묘를 死六臣묘역에 봉안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77년서울市의 자문요청에대한 회보내용」을 3시간동안 검토, 『당시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金文起를 현창해야한다고 결정했었으나』 국사편찬 위원회의 사육신 구성을 변경한바없다고 종래의 사육신 결정을 확인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①사료에 전거하여 金文起를 현창하여야한다고 史斷함 ②死六臣묘역에 金文起 허장(虛葬)을 봉안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③俞應孚묘는 현상대로 존치함이 가하다고사료됨 ④端宗복위운동에 가담하여 희생된 인사들은 忠臣壇에 위패를 봉안하는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구독신청 배달사고 583·2361

稅法案싸고 論難예상

15일 財務委상정 民韓, 低所得 稅額공제 引上주장

국회財務委는 12일하오 정부가제출한 稅法案에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財務委는 民韓黨이 이날 제출한 소득세법, 법인세법등 6개稅法 개정안과 不當利得稅法폐지법안등 모두 7개세법안을 오는15일 상정, 제안설명을듣고 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이어서 정부안과 民韓黨안을두고 많은논란이 벌어질것같다.

특히 民韓黨은 정부안보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율을 인하할것을 주장하고있고 내년도 稅收결함을 예상하고있는 民正黨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등을 정부안보다 더 大幅 上向조정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소득세법의 경우 ▲民韓黨은 근로소득자의 기초공제액을 66만원으로 올릴것을 내세운데반해 정부안은 현행과 같이 30만원으로 하고있으며 ▲배우자공제액도 48만원(정부안 42만원)을 주장하고있다.

근로소득자 稅額공제에 있어 ▲월소득 30만원이하의경우 30%인정은 정부안과 같으나 ▲정부안이 30만~40만원까지 15%를 제시하고있는데반해 民韓黨은 30만원~50만원으로 인상할것을 주장하고 ▲지금까지 稅額공제가 되지않았던 50만원초과 70만원이하에 대해서도 10%를 공제토록 하고있다.

民韓黨은 사업소득자에대한 稅額공제제도도 신설할것을 주장하고 최저6% 최고50%(현행6%~60%)로돼있는 정부개정안의 최고세율을 최고50%를기준으로 전소득계층에 걸쳐 下向조정해 지나친 누진구조를 완화할것을 주장하고있다.

법인세에 있어서 정부안은 課標5천만원이하의경우 20%, 5천만원 초과시 22%, 非上場대기업의경우 25%로 되어있는데반해 民韓黨은 15%·25%·30%를 民正黨은 정부안보다 일률적으로 5%씩상향조정할 계획으로있다.

또 상속세기초공제액의 경우 정부안이 1천만원(현행 8백만원)으로 돼있는데 반해 民韓黨은 1천5백만원으로 인상할것을 주장하고있고 배우자공제도 정부안 2천만원(현행1천6백만원)보다 5백만원이 많은 2천5백만원으로 인상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財務委에서 朴完圭, 金文元(이상 民韓), 朴鍾寬, 鄭宗澤(이상民正), 趙炳鳳의원(국민)등은 ▲부가세제의 폐지 ▲근로소득 공제율의 가연동제도입 ▲비공개법인의 重課세여부 ▲5%과세로 조세특혜를 주고있는 住公등 16개 公共법인을 일반과세법인으로 전환할 것 ▲국제경쟁력이 없는 나프타분해사업에 조세특혜를 주는 이유 ▲많은 순이익을내는 조선공업을 중요산업으로 묶어 조세특혜를 주는 이유등을 물었다.

後繼 안드로포프有力

蘇聯邦최고회의 23일로 延期

【모스크바AP=聯】 모스크바 방송은 11일오는16일 개회될 예정이던 蘇聯最高회의가 1주일후인 23일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연기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는 브레즈네프의 장례식이 오는15일로 예정된것과 관련이 있는것으로보인다. ★관련기사2·3면

서방소식통들은 이같은 조치로 蘇聯의 당지도층이 브레즈네프의 사망에 따른 黨지도부의 정비를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될것이라고 분석했다.

전통적으로 연방최고회의는 黨의 정책을 결정하는 黨중앙위전체회의가 열린 하루뒤에 개최되는게 상례이다.

따라서 이번 黨중앙위전체회의는 당초 15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연방최고회의가 1주일 연기됨으로써 22일에 열릴것같다. 이번 黨중앙위전체회의에서는 새로운 黨서기장이 선출될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스통신은 또 브레즈네프가 10일 상오8시에서 9시사이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공식의료공보를 통해 밝혔다.

死因 심장마비

이 의료공보는 브레즈네프가 오래전부터 대동맥경화증에 따른 복부동맥의 맥류(脈瘤) 형성으로 앓아왔으며 또한 심장박동과 심장기능부진으로 고통을 받아왔었다고 말했다.

15일 붉은광장埋葬

브레즈네프의 유해는 12일부터 3일간 모스크바에서 정장한채 안치된후 오는15일 「붉은광장」에 매장될 것이라고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民正 金幸子의원

民正黨 소속 金幸子의원(사진)이 11일하오8시20분 지병으로입원중이던 서울大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39세.

金의원은 梨大政外科를 졸업, 美하와이大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은뒤 梨大부교수를 역임했으며 입법회의의원을 거쳐 11대 民正黨 전국구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未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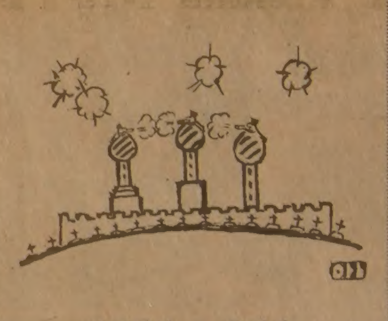
연결식은 13일상오11시 국회의사당에서 國會葬으로 거행된다. 葬地는 龍仁공원묘지.

柳壽桓씨 의원承繼

金의원의 별세에 따라 전국구예비후보5번인 柳壽桓씨(慶北道支部사무국장)가 議員職을 承繼하게된다.

◇柳씨略歷 ▲慶北軍威출신 ▲50세 ▲釜山水産大졸 ▲仁川重工業노조위원장 ▲共和黨훈련원교수 ▲民正黨創黨발기인

社會漫評



머지않아 또 총질이 시작되겠군…

地平線

毛澤東은 죽기 얼마전에 華國鋒을 불러놓고 『그대가 中國을 이끌어가는限 안심하고 눈을 감을수 있다』고 말했다 한다. 그는 76년 9월에 死亡했고 그때 華國鋒은 黨第一副主席겸 首相이었다. 毛死後 華는 中共에서 第1人者였다. 미국의 中共문제 전문가들은 華國鋒이 헬리콥터를타고 北京政界에 내렸다고 묘사했었다. 그러나 華는 이제 政治第2線으로 밀려나고말았다.

▼공산국가에서는 權力承繼가 制度化되어있지 않다. 『러시아를 다스리는者는 누구에 대해서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일찍이 피터 大帝는 말했다. 이는 소련權力의 本質과 그對社會관계의 험준한 역사를 요약하는 말로도 적용된다. 그러고 보면 오늘의 中共 鄧小平은 좀 特異한 존재인것 같다. 鄧은 中共에서 權力을 휘두르는 第1人者의 實力을 행사해왔으나 制度上의 最高位者가 되려고 하진 않는것같다. 다만 그가 밀고 가는 中共의 現代化를 위한 實用主義가 權力承繼투쟁의 희생물이 되지않게하기 위해서 그러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路線을 따르는 보다 젊은 胡耀邦과 趙紫陽을 각각總書記와 首相자리에 앉히고있다.

▼브레즈네프死亡후의 새소련指導層에도 이같은 樣相이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것 같다. 금년 2월 크렘린의 제2人者 수슬로프가 사망하고, 브레즈네프의 건강이 현저하게 악화되자 미국내 소련문제 전문가들은 「2단계 權力承繼說」을 폈었다. 제2人者를 허용치 않았던 브레즈네프의 사후 필연적으로 등장할 集團指導制 아래서는 흐루시초프나 브레즈네프와같은 강력한 第1人者가 나오기 어렵다는 데서다.

▼그 어렵다는 이유는 2가지다. 第1단계 權力투쟁이 될 集團指導制에 참여할 政治局員들의나이가 너무 많다는것이다. 지금 꼽히고있는 안드로포프는 68세, 체르넨코는 71세, 그리신도 68세다. 이들이 2、3년간 각축전을 벌인끝에 누가 先頭走者로 되더라도 이미 모두 나이 70세를 넘어서게 되므로 강력한 第1人者로 부상되긴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전통적으로 비밀경찰격의 KGB와 軍部와의 나쁜敵對관계가 꼽힌다. 현재는 前KGB두목 안드로포프가 權力투쟁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것 같으나 軍部 반발에서 오는 연합반대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없지않다는 풀이다.

▼따라서 안드로포프와 체르넨코가 할수없이 타협, 「鄧小平 역할」을 하면서 보다 젊은 第1人者를 탄생시킬 가능성도 전혀없지는 않다한다. 미국 일각에선 그 2단계 承繼투쟁에서 勝者로 떠오를 유력한 후보로 51세의 농업문제 전문가며 政治局員인 고르바체프를 지목하는것 같다. 관심깊게 지켜볼 일이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셰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 LEON'S / MCLEVIN / SHEPPARD / MARKHAM / HWY. 401

연말·연시및 각종파티
회갑·생일·동창회모임등
고급횟감을 마련해 드립니다.
(파티TRAY는 3일전에 예약을 해 주십시오.)
□ 광어
□ 민어
□ 튜나
□ STRIPPED BASS
□ SEA BASS
얼지않은 김장용
ㅁ생 동 태
ㅁ생 새 우
ㅁ물오징어

ROYAL YORK / BLOOR / THE QUEENSWAY
K&R Sea Food
765 THE QUEENSWAY
☎259-1585

감사말씀

지난 11월6일 저희 결혼식에 바쁘신 중에도 여러분이 오셔서 축복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셔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림이 도리오나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1982년 11월

조 석민
임 영미
삼가올림

「東西和解」에서「新冷戰」까지

브레즈네프 이후 <1>

後繼는 누구

체르넨코(政治局員)·안드로포프(前KGB총수)有力
臥病키릴렌코는 執權해도 過渡

누가 브레즈네프의 뒤를 이을것인가하는 문제는 브레즈네프 생전에서부터 서방측의 민감한 관심거리가 되어 왔다。

이제 이문제는 발등의 불이 되었다。

서방의 소련소식통들은 소련공산당 정치국위원인 콘스탄틴·체르넨코(71)、소련 비밀경찰(KGB)최고책임자였던 유리·안드로포프(68)、및 서기국위원 안드레이·키릴렌코(76)가 3파전의 양상이었다。

그러나 키릴렌코의 경우 실각설이파다했다가 이번에 사망설까지 나돌고 있는 처지여서 안드로포프와 체르넨코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는 문제이다。

이대결에서는 최근 안드로포프가 단연두각을 나타내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안드로포프는 지난5월 정치국원과 당서기직을 겸직한 이래 꾸준하게 후계자리를 다져왔고 최근 계속보도된 일련의 브레즈네프축출 캠페인을 주도해온것으로 알려졌다。꼬리에 꼬리를물었던 브레즈네프은퇴설의 주모자 역시 안드로포프였다。

브레즈네프는 1963년 그의 전임자인 흐루시초프에 의해 그의 후계자로 임명됐다。브레즈네프는 후계자지위를 이용、이듬해 흐루시초프를 몰아내고 최고권좌에 올랐다。

이같은 자신의 前例를 두려워한 나머지 브레즈네프는 생전에 후계자를 지명하지않은 대신 충복들로 측근을 삼았다。

체르넨코는 「브레즈네프 마피아」로 불리는 3대파벌가운데 하나인 몰다비아派의 대표적인 인물。

그는 1950년대초 스탈린이 브레즈네프에게 남부국경지역 몰다비아공화국의 소비에트化공작을 맡겼을때 브레즈네프밑에서 선전책임자로 일했다。

이때 체르넨코의 충성심에 대한 보답으로 브레즈네프는 자신이 중앙당간부로 영전한 뒤인 1956년 체르넨코를 공산당중앙위원회로 끌어 올렸다。

10년뒤 브레즈네프가 소련공산당서기장으로 최고 권력을 장악함과함께 그는 중앙위원회총무국장으로 발탁됐으나 76년 中央委서기、77년 정치국후보위원을 거쳐 78년에야 正위원이 되는등 당내 승진은 늦은편。그러나 75년 헬싱키유럽안보정상회담때 브레즈네프와 동행、서방측에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 줄곧 브레즈네프의 오른팔이자 소련내의 제2인자로 군림해 왔다。

지난 1월 黨정치국원이며 이론가인 미하일·수슬로프가 사망한후 체르넨코의 지위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이 브레즈네프측근에 밀착했던 것이 오히려 그의 권력기반구축에 장애요소가 되어왔다。

반면 안드로포프는 브레즈네프파벌에 속하지 않는인물로 체르넨코가 브레즈네프의 충복이었다면 안드로포프는 냉정한 관료。

따라서 브레즈네프가 없는 상황에서는 안드로포프가 누구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수 있을것이라는 분석이다。

올들어 브레즈네프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소련지도층의 권력남용에 대한 KGB의 수사는 브레즈네프를 견제하기위한 안드로포프의 치밀한 계산에의한 공작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록 이수사가 브레즈네프를 실각시키는것이 목적은 아니었다하더라도 브레즈네프의 권력기반이 약화됐음을 대내외에 알리는데는 성공했다。

안드로포프가 취한 일련의 행동은 브레즈네프死後를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되고있다。

「그것은 브레즈네프의 후계자가 브레즈네프 독단으로 정해질수 없다는 은근한 협박인동시에 브레즈네프에 의해 지명된 후계자라할지라도 브레즈네프死後 그 지명에 대한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毛澤東의 후계자로 지명된 華國鋒이 毛가 죽은후 鄧小平에의해 실각한 것과 같은 사건이 소련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추측은 상당한 가능성을 갖는 것이다。

다른 한사람의 경쟁자인 안드레이 키릴렌코는 브레즈네프마피아의 하나인 도네페르派를 대표하는 인물。그는 수슬로프와 함께 브레즈네프를 후계할 인물로 꼽혀왔다。브레즈네프와는 동갑이나 사실은 2개월年長。

이같은 高齡때문에 그가집권을한다해도과도집권에불과하리라는관측이지배적이다。

이들 세사람외에도 티호노프수상·드미트리·우스티노프국방상、로마노프 레닌그라드市당제1서기、미하일·코르바체프정치국원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중 올해 50세인 코르바체프는 그의 젊음과 활력으로인해 새롭게 주목을 받고있다。

11일 브레즈네프 사망이발표된과동시에 당분간 브레즈네프의 공백은 집단지도체제가 메울것으로 발표됐다。

집단지도체제에는 안드로포프、체르넨코、티호노프수상、그리신 모스크바시장、그로미코외상、우스티노프국방상등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집단지도체제는브레즈네프 후계자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집단지도체제에 포함된 사람중의 1명이 브레즈네프뒤를 이은다 해도 그의 執權은 과도기로 끝날 공산이 크고 군부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실력자가 가까운 장래에 실권을 잡을것으로 보인다。

그럴경우 소련의 지배체제는 러시아대혁명을 겪지않는 非볼셰비키세대로 세대교체가 되는셈이다。【林鍾乾기자】

◇닉슨과의 한때 73년 캠프데이비드산장에서 산책을 즐기는 브레즈네프와 닉슨。이들은 1단계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을 체결, 東西화해의 결실을 맺었다。

18년의 功過

농업失政 등으로 흐루시초프 몰아내고 權座올라 黨書記長·국가원수 겸임…軍部·KGB까지 장악

「쿠바恥辱」씻고 軍事力 美앞질러
스탈린式 탄압政治…「反體制」철퇴

10일상오8시30분(한국시간하오2시30분) 사망한것으로 공식발표된 레오니드·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원수(75)는 냉전체제에서 화해로,화해에서 다시 新냉전체제로 東西관계의 굴곡이 심했던 지난 18년동안 죽을때까지 소련의 최고권좌를 지켜낸 「크렘린宮의 皇帝」였다。

그는 소련역사상 공산당서기장과 국가원수를겸한 최초의 인물이었고 군부와 비밀경찰(KGB)을 동시에 장악했다。

브레즈네프는 64년 자신의 정치적 代父였던 흐루시초프를 농업정책의실패와 쿠바미사일위기때 소련이 미국한테 겪은 수모의 책임을 물어 실각시키고 黨제1서기가됐다。

그뒤 18년동안 브레즈네프는 세계최대의땅덩어리인 소련과 2억6천만명의 소련국민을 마치 개인소유처럼 마음껏 지배해왔다。

아울러 그는 세계의정치기상도를 좌우하는 국제정치무대의 大政客이었다。

그가상대한 미국 대통령은 존슨에서 레이건까지 모두5명。

닉슨과 72년 美蘇 전략무기 제한협정(SALT)을 체결, 東西화해(데탕트)시대를 열었고 레이건과는 新냉전으로 맞섰다。

브레즈네프의 최대공적으로는 소련국력의 급신장을들 수 있다。

그가 黨제1서기가 되었을때 소련의 최대목표는 쿠바에서당한 對美수치감을 씻는 일이었다。브레즈네프는 그런 묵은숙제를 해결해냈다。적어도 국사력 분야에있어서만은 소련은 미국을 따라잡았다。하지만 그가 정력적으로 추구한 소련의 군사력증강은 데탕트를속이고 소련국민의 경제적희생속에서 이뤄졌다。이점에서 브레즈네프는 소련외교와 소련국민에게 큰부채를 유산으로 남겼다。

브레즈네프의 방침은 외교와 내정으로 크게나누어 볼수있다。

외교분야에서는 흐루시초프가 주장했던 平和共存노선을 이어받아 데탕트를 추구했다。

하지만 이데탕트는 어디까지나 소련을 위한 데탕트 였다。

앙골라와 아프가니스탄을 무력침공했고 동남아와 중남미의 공산게릴라에 끊임없는무력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내정에서는 스탈린式 공포탄압정책을 답습、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점만이 다를뿐 많은 反體制인사에대해 무자비한 철퇴를 가했다。

反體制지식인을 정신 병원에 집단수용하는가 하면 시베리아로 유배시켜 버렸다。

솔제니친을 추방하고 사하로프박사를 시베리아의 고르키市에 유배 시켰다。

자신의 정치적 代父인 흐루시초프를 몰아내고 三頭지도체제를 구성했던 코시긴수상을 黨서열 3위로 밀어낸데이어(71년) 77년에는 포드고르니국가원수를 정치국에서 축출하고 자신이 국가원수직까지 겸직 크렘린의권력을 완전 독점해 버렸다。

다만 현실적인 권력야욕이 없는 黨이론가 수슬로프만은 예외였다。

브레즈네프는 1906년 12월11일 우크라이나에서 가난한 철공소노동자의 2남1녀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브레즈네프는 소련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 출신이었다。

레닌은 귀족가문의 고등학교교장 아들이었고 스탈린은 구두공장 아들이었으며 흐루시초프는대장간주인아들이었다。브레즈네프는15살때부터 제철소공원으로 취직해 가계를 도와야만했다。만약 러시아혁명이 없었다면 브레즈네프의 생애는 제철소노동자로 끝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는 자신이 야금기술자로 제철소에서 일했던것을 자랑으로 여기며『강철의사나이』로 불리기를 좋아했다。

31년 25살때 공산당에 입당한 브레즈네프는 같은 고향출신인 흐루시초프와 인연을 맺어 우크라이나 공산당 지방조직에서 착실한 성장을 거듭했다。2차대전때는 육군소장으로 참전、군정치위원을 역임하면서 군부와 깊은 관계를 갖기도 했다。

브레즈네프가 三頭體制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낸 계기는 68년의 체코사태。브레즈네프는 체코자유화의 무력탄압을 주장했고 制限主權論으로 대표되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주장、코시긴등 온건파를 제압했다。

브레즈네프는 반대파를 제거할때나 모든정책을 결정할때 한창 黨내의 콘센서스(합의)를 간판으로 내세우는 신중함을 보여 주었다。이점이 바로 그의장기집권을 가능케 한것으로 보인다。

스탈린이 반대파에대한 피의 숙청으로、흐루시초프가철저한 보복인사로 권좌를 지켜냈던점과는 좋은 대조를이루고 있다。

인터내셔널(국제공산당黨歌)을 들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어릴적 老母가 만들어준 국수맛을 잊지못한다고 회고록에서 기술하고있는 브레즈네프지만 현실적 문제에서는 얼음장처럼 냉정했다。

야금공시절에 만난 부유한 유태인출신의 부인 빅토리아 여사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남겼다。

장남 유리는 무역담당차관으로있고 차남 미하일은 신문기자이다。【李炳圭기자】

메아리

韓日간의 고대항로를 답사한다던 뗏목배 解慕漱(해모수)號가 어이 없는 꼴로 돌아왔다(11일자 본보11면)。공연히 高句麗 始祖 高朱蒙의 아버지(해모수) 이름만 무색해진 셈이다。

해모수號의 항해는 上古시대 韓日交涉史의 일단을 밝히기위해 탐험협회회원인 사학도들이 기획한 것이었다。上古시대 그대로를 재현하기 위해 뗏목으로 大韓해협을 건넌다는 것이 그 기본 구상이다。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 때 배모양을 부이(浮子)가 달린 뗏목으로 추정했는지는 알수가 없으나、남이 헤엄쳐 건넌 大韓해협을 뗏목 타고 건너자는것이니까、그리 모험스런 기획 같지는 않다。

여하간 해모수는 9일 아침 7시30분 巨濟島를 떠났고、예정대로 하면、다음다음날(11일) 아침 7시께 對馬島 이즈하라(嚴原)에 입항할 것이었다。

그랬던 것이 해모수號는 험한 풍랑을만나 부이 6개중 2개를 뺏기고 10일 새벽3시부터 표류를시작、이날하오5시께 마침 부근을 지나던 유조선에 의하여 「익사직전」상태로 구조됐다。출항33시간을지나 구조된자리가 巨濟郡북형제도 동쪽 7마일이었다니 별로 멀리 가지도 못하고 조난한게 틀림 없다。

모든일이 그렇듯、해모수號가 실패한 원인도 복합적인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풍랑을 만나 부이가 떠내려갔다는 것을보아、뗏목배의 구조가 너무 허술했을수도있다。신문에 난대로 탐험대원들이 무전장비를 갖추지않았다면 조난했을때의대비가 만전했다고는 못한다。

이런것말고、해모수號의 으뜸가는 不運은 날씨다。날씨만 좋았더면、해모수號는 뗏목의 구조는 허술하더라도 무전장비의 아쉬움을 모른채 바다를 건넜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의 날씨를 그냥 不運으로만 돌릴수는 없다。모험이란 본디가 「계산된 危險」에 도전하는것이므로、의당 날씨도 그 계산에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상대에 의하면、9일 하오4시 西海와 南海서부에 폭풍주의보가 내렸고、10일 상오3시에는 南海일원에 주의보가 발령됐다。

해모수號의 출항은 西海의 주의보가 내리기 8시간30분 전이다。그러나 그때를 전후한 기상도를 보면 저기압이 하나 우리나라를 지나고 그 뒤를 다른 저기압이 따르고 있다。48시간 항해를 예정하면서 안심할 수 있는 형세는 아니다。

그리고 폭풍주의보가 南海일원으로 확대된 10일 상오3시에 이미 해모수號는 풍랑에 휘말리고 있었다。

이 두가지를놓고 생각하는 첫째는 해모수號가 날씨 판단에 소홀했던것 아니냐는것이다。다음은 기상대의 주의보발령이 좀더빨리 나올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다。주의보는 그렇다하더라도、우리 기상예보가 당일치기 아닌 48시간예보가 가능하다면、이번같은 해프닝이 생길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었을게 틀림없다。

아니할말로 해모수號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자고했다면 훨씬 항해가 수월했을지도 모른다。세계에 유례가 없는半年예보、3개월예보、月間예보까지 하는 저들의 기상자료를 이용할수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기상대가 왜 당일치기 예보에 만족해야 하는지는 긴 설명이 필요없다。일본의 경우는 매일 北半球 2천개소의 관측點과 5개의 기상위성으로부터、기상 데이터 6만건을 받아 1만개 이상의 方程式을 컴퓨터로 푼다。이를 토대로 24시간、48시간 앞의 날씨를 그것도 확률 몇%라고 數値예보한다。이런것을 생각하면 우리 기상대의 24시간 예보가 지금만큼 적중하는 것이 신기하다。컴퓨터 아닌「感퓨터」의적중이 매우 우수하다고 해야할 판이다。

그러나「感퓨터」의 성능을 감탄만하고 있기에는 사정이 너무 딱하다。해모수號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해모수號를 엄습한 폭풍은 어부7명의 목숨을앗아가고 많은 재산피해를 남겼다。제대로돈들인 기상업무、기상에 관한 바른 인식이 있었다면 막을 수도 있었을 피해다。

이제는 기상업무는 소풍날씨 판단을 위한 것만이 아님을 생각할때다。적어도 48시간예보를 가능케 하는 기상투자는 오늘의 시급한 과제다。

「感퓨터」

金昌悅 <編輯委員>

◇해저인양 軍艦보는 英皇太子妃
다이애너英國皇太子妃가 해저에서 지난달 인양된 16세기의 군함 메리로즈號선체를 둘러보는 동안 수력승강기를 타고 위로 오르면서 미소를 짓고있는 모습。【포츠머드(잉글랜드)11日UPI=聯合】

防彈조끼를팝니다
★이社 저명人士겨냥 販促

이스라엘군의 레바논침공당시 상당한효과를 보았다는 방탄조끼를 현대유행에 맞게 간편히 개조한 이스라엘의 한 군사용품제조회사는 정부관리나 회사간부 그밖의 저명한 인사등 신변보호에신경쓰는 미국인들을 겨냥한 시장판매개척에 나서고 있다。【뉴욕=聯】

海外토픽

外界에 知的생물체
★美 電波天體학자주장

지구 외계에는 지구와의 접촉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지적생물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나 지구의기술문명이 외계의 메시지를 받을만한 수준에 이르지못하고 있다고미국 하버드대학스미소니언센터의전파천체학자 존·볼씨가 주장。

그는 최근 버지니아주 햄프턴시 소재 미항공우주국(NASA)연구센터에서 기자회견을통해 외계의 지적생물체(ETI)의존재를 간접적으로 입증할수 있다면서 ETI는 인간보다 훨씬 진보된 생명체일 것이라고밝혔다。

인간과 ETI를 비교하는것은 어렵지만 일부학자들은 이관계를 원시종족과 서구인간의 차이정도로 설명하고 있다는것。【햄프턴(美버지니아州)=UPI】

팬더곰 또 쌍동이
★出産 한해만에 慶事

중공의 북경동물원에서는 최근 쌍동이 팬더곰이 태어난지 정확히 1년만에 다시 또 다른 쌍동이 팬더곰이 출생했다고。

관영 신화사통신은 9일 새 쌍동이 팬더곰이 지난 9월14일에 태어났으나 한마리는 생후 1주만에 죽어버렸다고 보도。

지난4월 인공수정을 한 어미에게서 난 다른 한마리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만 어미가 얼마나 애지중지 지키는지 사육사들조차 접근할수 없어 성별이나 몸무게도 아직 알아보지 못했다고。

중공에서는 지난해 9월14일에도 세계최초로 인공수정을 한 주안·주안이 쌍동이 팬더를 낳았었는데 이 쌍동이 역시 한마리는 죽고 한마리만 남아있다。【北京=UPI】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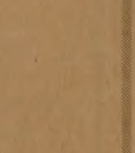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윈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轉賣者 1,549명 대상 税務사찰·罰金刑병과

讓渡차익의 67% 課税

관계당국은 12일 서울蠶室지역등 5개 민간아파트에 대한 수사결과 총분양자 4천6백91명중 33%인 1천5백49명이 전매한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이 받은 프리미엄에 대해 국세청을 시켜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한는 한편 서울시경은 이들에대해 주택건설촉진법등을 적용, 벌금형(최고1천만원)을 과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등에 대한 강개수사도 계속키로 했다. 또한 서울시

이번에 밝혀진 전매행위자는 狎鷗亭洞 現代아파트가 8백88명, 開浦지역의 美都가 1백61명, 京南이 6명이며 瑞草洞의 漢陽이 3백9명, 蠶室지역의 宇成이 1백85명등이다.

국세청은 전매자들로부터 프리미엄 소득 신고를 받은 후 신고액수를 국세청에서 아파트별, 층별로 실제조사한후 국세청이 책정한 프리미엄가격의 70%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세무사찰등을 통해 실제거래가격을 포착,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경우 전매행위자는 양도소득세50%와 주민세, 방위세 등을 포함, 양도차익의 67.5%를 세금으로 물게된다.

이와함께 투기전매행위를 조장한 상담, 기자나, 악덕복덕방및 배후전주등에 대해서도 자금추적및 자금의 순환과정을 추적조사하여 탈세소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경찰의주공아파트 전매자 색출작업과 병행하여 전면조사 요원30개반3백45명을 투입, 분양담첨자및 입주계약자 명단과동 사해왔다. (…)에 대한 투기전매행위를 조

국세청은 이번에조사한 5개아파트이외의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당첨자명단을 확보, 필요한경우에 실제 입주계약자명단을 제출받아 전매자를 색출,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투기를 조장하는 악덕복덕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한 각종 加算稅를 추징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또는 공급가액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2배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복덕방업자가 거래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을때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 방침이다.

"善意의 전매자 罰金최소로"

서울시경은 12일 국세청의 세무사찰과는 별도로 고발받은 전매자들이 프리미엄을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 확인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처벌키로했다.

경찰이 적용을 검토중인주택건설촉진법47조규정은 주택공급질서를 문란케하거나 혼란시키는 경우 최고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수있도록 돼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선의의 전매자들은 정상을 참작해 벌금액수를 최소한으로 줄여 어려운 원분양자가 부담한피해를 입는일이 없도록 수사과정에서 투기목적여부를 철저히 가려낼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밝혀진 5개민간아파트 전매행위자 분포를보면 狎鷗亭洞漢陽아파트가 분양자 4백56명중 3백9명이전매, 67.7%로 가장높은 전매율을보였고 狎鷗亭洞의 現代가 2천68명중 8백88명으로 42.9%, 蠶室지역의 宇成은 5백55명중 1백85명으로 33.3%의 전매율을보인반면 開浦지역의 美都와京南은 각각 13.3%(1천2백4명중1백61명)와 1.5%(4백8명중6명)로 낮은 전매율을 기록, 소위 아파트의 인기도를 반영했다.

한편 전매행위자 1천5백49명의 주소지별 분포는 江南區가 5백74명으로37%, 江東區가 1백22명으로8%, 江西區가 2백18명으로14%, 여의도 1백26명 8%, 江北지역이 5백9명으로33%였다.

관련자 4명 구속

아크릴板에 外國상표 붙여 가짜 TV보안기 大量판매

서울지검 北部지청은 12일 한일산업사대표 黃(…)씨(27·서울(…)363의29)등 TV(…) 관련자 4명과 이들로부터 가짜외제 보안기를 나눠어 비싼값에 팔아온 서울(…)한빛상사주인 (…)씨(30)등 상인 4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한일산업사 대표 黃씨는 지난8월부터 지금까지 국산아크릴원판을 잘라만든 TV보안기 6천여개에 일본미쯔비시상표와 일본어 안내문을붙여 외판전문업체인 동일상사대표 金(…)씨(48·서울(…)97)에게 개당3천원씩에 넘겼으며 金씨는 다시 외판원 30여명을통해 개당 1만5천~2만원씩을받고 시중에 팔아왔다는것.

또 인하전자공업사대표 李(…)씨(29·서울永登浦區大林3洞737)는 국산TV보안기 4천여개를 만들어 독일 「마비스」상표와 영어 독어로된 안내문을 붙인뒤 한빛상사주인 (…)씨와 서울江南區狎鷗亭洞 한양쇼핑센터의 상인 (…)씨(24·여)등에게 개당 3천~4천원씩에 넘겼으며 趙씨등 상인들은 이 보안기를 2만3천~2만8천원씩에 팔아 폭리를 취해 왔다는 것이다.

智異山에 첫눈…銀世界이뤄

천왕봉엔 10㎝

【南原·求禮】 국립공원 지리산에 12일 새벽 첫눈이 최고 10㎝나 내려 (…)이루었다. 예년보다 1개월(…) 빨리 내린 눈은 해발 1천915m의 천왕봉에는 10㎝가량, 해발1천5백7m의 노고단일대에는 8㎝가 내려 나무마다 (…) 눈꽃이 피었다. 【(…)】

대체로 맑아

기상대, 週末예보

중앙기상대는 (…)

아파트1개동호를 모두 3천만원의 프리미엄을붙여 전매, 주택공급질서를 문란시켰다는 것이다.

무주택자 11명권의 주택청약예금가입 신청서등을 위조, 주택은행 新李洞지점에 제출해 주택청약예금통서를 받아 냈는데 이들은 주택청약에 우선권이있는 무주택자를 미리 찾아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도장을 새겨 주택청약예금가입서를 위조하는수법을 써왔다.

이들은 또지난달7일께「李영숙」명의의 2순위 2백만원짜리 통장1개를 웃돈6백20만원을붙여 (…)에게 전매하는등 통장4개와 宇成

그런데 경찰에의하면 영장이 신청된 申씨등은 지난5월20일 신고없이 복덕방을연 고 지난3일 서울江西區(…)洞654의4 金모씨(30)등

주민등록표를 變造 순위 조작 公務員·철거민分 사들여 轉賣 自社아파트 申請해 投機 조장

투기類型

경찰은 또 이번수사과정에 서 드러난 투기유형은 ▲주민 등록표변조(2순위→1순위)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6개월이내 매매 또는 임대 ▲공무원·원호대상자·철거민등의 특별분양분 전매 ▲6 희이상 낙첨된 0순위통장 을 계획적으로 만들어 높은 프리미엄을받고 선매(先賣) 하거나 ▲건설회사에서 0순위통장을 매입, 자기회사 아파트분양에 신청, 투기조작 ▲건설회사에서 당첨권만 받은뒤 계약하지않고 부동산업자를 통해 전매 ▲무주택자명의로 선매청약에 가입한뒤등장을 거래하거나 아파트를분양, 전매 ▲주택청약금이가입한뒤 통장거래 ▲무허가소개행위등이라고 밝혔다.

原州 住公아파트 前관리소장 拘束

【原州】속보=原州市牛山洞주공아파트 부정임대사건을 수사중인 春川지검 原州지청은 12일상오 전 아파트 관리소장 정소남씨(45·서울城東區杏堂洞317의555)와 부동산투기업자표태길씨(36·原州市園洞59의3)등 2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및 사기, 업무상 배임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81년7월 임대용 아파트인牛山洞주공아파트 30가구(13평형)를 실수요자가 아닌 표씨에게 무더기로 임대권을 넘겨준 혐의이고 부동산투기업자 표씨는 정씨로부터30가구를 넘겨받아 가구당 2백~3백만원씩 전세금을 받고 실수요자들에게 분양, 6천7백여만원의 전세금 차액을 챙겨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

아파트 殺人犯 검거

18일만에 전과3범 韓相仁, 清州서

반상회옆방 접대부사건

◇서울江南區鷺院洞 한신아파트 朴聖淑양의 살해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韓相仁씨。

반상회 옆방에서 접대부 朴聖淑양(26)을 살해한 범인이 범행18일만에검거됐다。

서울江南區鷺院洞 한신5차아파트 朴聖淑양 강도살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江南경

찰서는 12일 전과3범 韓相仁씨(26·경기水原市梅灘洞 주공아파트21동305호)를 검거, 강도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9일 새벽2시께 清州市 西門洞 166 메여관에투숙, 신경안정제와 농약을먹고 중태에빠진 韓씨를 덮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에의하면 韓은 지난10월25일 하오7시 남치기를 하려고 시내를 배회하다 롯데쇼핑센터에서 나오는 40대부인 2명을 추적하다 놓치고난뒤 한신5차 아파트116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때마침 반상회가 열리고있는 807호에 들어가 세들어사는 차양방을 뒤진뒤 5돈쭝짜리 금팔찌등을훔쳐달아났다는것이다.

韓씨는 침대에 있어 TV를 보던 차양을 식칼로 위협, 돈을 요구하다 차양이 『안방에 돈이있다』고 말하자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전기줄로 손발을 묶은뒤 칼로 가슴을 두번찔러 살해하고 밖에 나갔던 차양의동생 明淑양(20)이 들어오자 손발을 묶어놓고 도망쳤다。

고 비상계단을 따라 도망치는 韓씨는 경비원 安晧淳씨(47)와 마주쳤으나 安씨를 밀어뜨리고 철책을 넘어 漢江쪽으로 달아났다는것。

강변고수부지에서 피몸은 옷을 벗어버리고 부근 아파트공사장빈터 빨래줄에 널려있던 잠옷하의와T셔츠를 훔쳐입은 韓씨는 택시를 城東區(…)洞에사는 누나 韓모씨(31)집에 숨었다。

韓씨는 11월3일 교도소에서 사귄 (…)(23)(…)씨(23)등 동료들을 만나 水原市梅山洞에서 혼자집을 보던 金모씨(29·여)집을 털어 카메라·시계등 1백20만원상당의 금품을 털어(…)는등 두차례나 더 범행을 저질렀다。

韓씨가 붙잡힌것은 동료 (…)씨가 지난3일 光化門네거리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붙잡혀 경찰에 韓씨의 범행을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형사2부 朴萬浩부장검사(左)가 12일상오 李圭光피고인의 변상결심을 하기 위해 서울대병실로 가고있다。

뇌염豫防接種 확대

保社部 내년 6백50만명 실시키로

보사부는 12일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일본뇌염, 홍역등을 줄이기위해 내년중 일본뇌염은 6백50만명(자비부담 3백50만명) 홍역 25만명(자비부담20만명)에 예방접종을 확대실시키로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일본뇌염종에 의료보험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는한편 이날소집된 시·도방역관계관회의를 통해 올해 일본뇌염이 많이 발생한 지역의 원인조사와병 핵, 의증환자를 포함, 각 병의원을 다녀갔던 모든환자를 의 진료기록사본을모아 보사부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文化財 매장흔적 못찾아

大邱발굴企圖…防空壕구조만 확인

【大邱】 大邱매장문화재 발굴기도사건을 조사중인 大邱市와 경찰은 문화재가 묻혀있다는 문제의 장소인 방공호를 뚫었으나 단 한점의 문화재도 발굴하지 못했다。

大邱市와 경찰은 11일하오 3시40분부터 밤12시까지 거액의 문화재가 매장돼있다고 알려진 大邱市中區北城路2街35의15 蔡이수씨(37) 소유점포 뒤착고 지하방공호를 뚫어내고 발굴작업을 폈으나 방공호를 만든구조만 확인했을뿐 문화재가 매장된흔적은 발견하지못한채 작업을 중단해 문화재 매장가능성은 희박한것으로 보인다。

작업반은 가로1백35㎝、세로2백23㎝、높이1백85㎝규모의 蔡씨집 방공호를 이날하오 찾아내 방공호 중앙부분 콘크리트 바닥을 깨고 (…) 가량 지하로 파들어 갔으나 이것을 만들때 사용한 시멘트 (…) 깊이50㎝ 께 20㎝의 (…) 두께30㎝에 두 모래와 자갈이 섞인 (…) 정도의 자연 한상(河床) 지층이 나와 작업을 중단했다。

李圭光피고인 징역 4년求刑

어제 結審공판

(…)李圭光피고인(57)에 대한 결심공판이 12일 상오10시15분 李피고인이 입원중인 서울대병원 1211병동 특실1107호에 서 임상재판으로열려 1심선고형량과같은 징역4년, 추징금1억원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朴萬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임상결심에서 대검중앙수사부 1과장 (…)부장검사는 李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1심선고형량대로 유지해달라』는 검찰의 견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은 李피고인에게 『서울고법에서 왔다。 우리들의 말이들리느냐』며 여러차례 물었으나 李피고인은 눈을감은채 숨만가쁘게 쉬며 의사표시를 하지 못했다。

재판장은 李피고인이 말을 하지 않는 가운데 계속 『李張부부로부터 한·중등 합작은행 설립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李피고인이 역시 아무 대답을 하지않자 『심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어 선거공판을 오는15일 상오11시30분에 갖겠다고 밝히고 10분만인 상오10시25분 임상재판을 끝냈다。

이날 임상재판에는 재판부 판사 3명과 검찰에서 辛부장검사, 서울고검 (…)부장검사등이 법복아닌 평복차림으로 참석했으며 담당의사인 서울대병원 내과과장 (…)박사와 가족 기자들이 공판을 지켜보았다。

공판이 끝난직후 韓박사는 재판장에게 『피고인이 의식까지 상실한 상태는 아니며 12일 상오까지도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한편 李피고인의 변호인인 白翔起 (…)두변호사는 이날 공판이 열리기전 재판부에 공판기일 연기신청및 공판정 변경에대한 이의신청을 냈으나 모두 불허되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고 공판에 불참했다。

10代셋 택시强盗 운전사찔러 살해

【光州】11일 밤10시25분께 전남 光州시 (…)앞길에서 光州전일운수소속 전남 4하1057호(운전사 安(…)·30) 택시를 타고 가던 10대소년 최모군(16·光州市北區龍頭洞)등 3명이 운전사 安씨를 흉기로 위협, 금품을 요구했으나 安씨가 불응하자 목과 왼쪽 등등을 찔러 죽이고 달아났다。 【(…)】

大邱-密陽등DDD

한국 전기통신공사는 大邱~密陽등 4개구간의 시외전화를 DDD방식으로 변경, 오는 14일 0시를기해개통한다。

또 서울~(…)등 3개구간의 시외전화도 16일0시를기해 DDD구간으로 변경되는데 이번에 변경되는 구간과 지역번호는 다음과같다。

◇14일▲大邱(053)~密陽(1527)▲釜山(051)~(…)(1654)▲光州(062)~高興(1666)▲順天(0661)~高興(0666)

◇16일▲서울(02)~(…)(1456)▲서울(02)~(…)(1545)▲大邱(053)~(…)(1545)

우표 딱지

전국 郵票展 金賞받은 金承清씨

20年 이어온 취미…"歷史를 호흡한다"

크기나 무게로 따져 우표처럼 값비싸고 의미있는 물건도 없다。값으로는 전세계에 단 한장 남아있는 英領기아나의 1센트짜리 1백만달러를 호가한고 각종 우표에는 저마다 사연이 곁들여 있으니 그렇다。그런 점에서 가로 세로 2㎝의 「우표」의 세계는 우주의 축소판이랄 수가 있다。

慶熙大 경영대학원생 金承清씨(30·사진)는 벌써 20년째 「우표딱지」 세계를 맴돌고 있다。부산土城국민학교 3학년때 우연히 손에 쥔 외국우표에 반해 우표수집을 시작, 지금은 국내에 1백명 남짓한 전문우취가의 한사람이 됐다。그동안 모은 우표는 자그마치 10여장으로 대형앨범 1백여권의 분량。

『우취(郵趣)는 단순한 수집과는 다르며、재산증식을 위한 투자도 아닙니다』

수집된 우표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해 우표발달사와 郵政史를 연구하는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취라는 설명。

金씨의 이같은 우표수집 태도는 최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2전국우표전시회」의 성인부 국내부문에서 金賞을 받음으로 증명됐다。金씨가 상을 받은것은 남보다 비싸고 귀한 우표를 많이 모았기 때문이 아니다。최초로 국산용지를 사용한 지난64년9월부터 그라비아인쇄가 시작된 지난69년5월사이에 발행된 보통우표37가지를모두 모았다。기본우표를 체계적으로 분석、인쇄공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한것이 평가를 받은 것으로。한국우표를 깊이 연구한 사람에게 주는 「興智賞기념상」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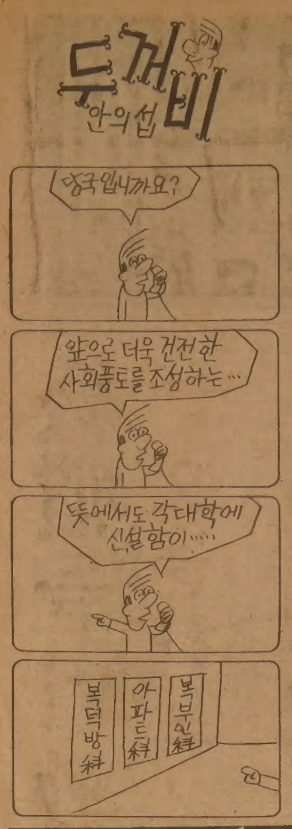
金씨는 지금도 「우표딱지에 미친사람」이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헌책방、고물상등을 뒤지고 다닌다。

2년전에 결혼한 부인까지도 몇시간씩 밤에 틀어박혀 우표정리에 정신없는 金씨에게 「거센 항의」를 하곤한다。

『아이스크림속에 저질 외국우표를 넣어파는 상혼이나 어린이들이 기념우표를 사기위해 밤새워 줄을 서야하는 현실을 어른들은 가볍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오는 84년에 맞는 郵政1백주년을 앞두고 단순한 그림딱지가 아니라 우표속에 서린 역사를 호흡한다는 방향으로 어린이들의 취미를 지도해야 한다는 뜻있는 충고다。

【姜秉泰기자】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오리엔탈·파레스

529 BLOOR ST. W. TOR.
533-3545-6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스타
미용실
동부영업
11월15일
(월)부터
예약전화
741—4410(평일)
267—0333(월)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저희 스타미용실을 많이 애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에 계신 교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11월15일(월) 부터 동부 한국식품 플라자내 2800 Eglinton Ave. E. 에서 매주 월요일 영업하게 되오니 동부에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애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동부영업시간 : 오전10시~오후7시
2800 Eglinton Ave. E.
(동부한국식품 플라자내)
※동부 예약은 미리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영업시간 : 화요일~토요일
오전9시~오후8시
2437 Finch Ave. W.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6월.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할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조용하고 아담한 분위기,
교통편리한 장소에서!
여러분의
연말·연시 파티는 Macho 레스토랑에서

■메뉴 : 한식, 서양요리 각종주류
■주소 : 4035 GORDON BAKER RD. SCAR.

498-1300, 496-2196
MACHO레스토랑 이해창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장의사〉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京畿、계속先頭 우승문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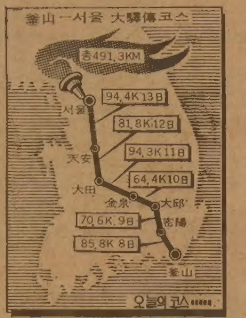
終盤들어 熱戰…신기록16개
오늘하오2시40분 汝矣島골인

◇열차와 스피드를 겨루며

열차와 스피드를 겨룬다。제5소구 鳥致院—全義코스에서 경남의 鄭渭植이 역주하고있다。【대역전취재반】

28회 京釜大驛傳경주 (5일째)

【天安=대역전취재반】 제28회 釜山—서울간 대역전경주대회(한국일보社·日刊스포츠·대한육상경기연맹 공동주최) 최종주자가 13일 하오2시40분께(예정시간) 서울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 골인한다。지난8일 釜山을 출발한 대역전 레이스서 경기(京畿)가 12일 제5구간(釜山—天安)까지 종합기록 20시간21분14초를 마크、제3구간부터 계속 선두를 지켜 우승을 바라보고 있다。



대회 5일째인 이날 구간 신기록 3개、소구간 신기록 3개가 수립되어 종반에 들어 더욱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있으며 이날까지 모두 16개의 대회신기록(구간3、소구간13)과 1개의 소구간 타이기록이 수립되었다。서울은 종합기록서 경기에 4분47초 뒤지는 20시간26분01초로 2위를 달리면서 경기를 추격하고있다。

12일 大田—天安간 81·8㎞코스서 벌어진 대회 5일째 경주에서 경기는 4시간8분58초로 선두로 골인、구간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차지하여 종합수위를 유지했다。2위인 서울(4시간11분11초)과 3위의 충남(4시간11분30초)도 종전구간기록 4시간12분19초(경기)를 깨뜨리는 구간신기록을 세웠다。경남은 종합기록 21시간37분10초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날 레이스는 최장구간인 제2소구(儒城—大平里 16·2㎞)간에서 판가름 났다。제1소구에서 경남(柳在堰)에 이어 2위로 골인했던 경기는 제2소구서 중장거리의 스타 朴京德이 종전자신의 최고기록(47분27초)을 10초 단축한 호조로 […]

京畿를 先頭에올린 朴京德
大驛傳에만 7번째참가 小區間에서 新記錄세워

대회5일째 大田—天安 구간에서 경기의 朴京德(23·경희대1년)이 빛을보였다。朴은 이날 제2소구 儒城—大平里 16·2㎞코스에서 자신의 구간최고기록을 10초나 단축시켜 […] 경기의 우승전망이 밝습니다。 […]【대역전취재반】

<제5일 기록> (釜山—天安 396·9㎞)

①	경기	20시간21분14초
②	서울	20시간26분01초
③	충남	20시간26분32초
④	경남	21시간37분10초

<제5區間 기록> (大田—天安81·8㎞) (☆표는 신기록)

☆①	경기	4시간 8분58초
☆②	서울	4시간11분11초
☆③	충남	4시간11분30초
④	경남	4시간17분46초

※종전=4시간12분19초

<小區間別 기록>

◇제1소구 (大田—儒城 10·9㎞)

①	柳在堰	(경남)	32분12초
②	金長日	(경기)	32분31초
③	尹得憲	(충남)	33분08초
④	吳在道	(서울)	33분12초

◇제2소구 (儒城—大平里16·2㎞)

☆①	朴京德	(경기)	47분17초
②	鄭鍾模	(서울)	48분31초
③	李善熙	(충남)	49분01초
④	趙在龍	(경남)	49분49초

※종전=朴京德(경기) 47분27초

◇제3소구 (大平里—燕岐11·1㎞)

①	俞眞濤	(경기)	33분27초
②	鄭暎和	(서울)	33분31초
③	咸洪根	(경남)	33분52초
④	裵銀煥	(충남)	34분41초

◇제4소구 (燕岐—鳥致院 7·4㎞)

☆①	尹忠求	(경기)	21분28초
☆②	徐炳大	(충남)	21분47초
③	車漢軾	(서울)	22분16초
④	金濟洋	(경남)	23분48초

※종전=최동호(경북) 21분58초

◇제5소구 (鳥致院—全義15·5㎞)

①	李洪烈	(충남)	48분15초
②	金周龍	(서울)	48분17초
③	李洪植	(경기)	49분50초
④	鄭渭植	(경남)	50분22초

◇제6소구 (全義—小井里15·5㎞)

①	宋俊圭	(경기)	25분09초
②	尹瀆基	(충남)	25분24초
③	嚴烽鉉	(서울)	26분24초
④	朴治鉉	(경남)	27분25초

☆=대회신▲=대회타이

◇제7소구 (小井里—天安 12·3㎞)

①	李春根	(서울)	39분F
②	朴商萬	(충남)	39분14초
③	黃寅哲	(경기)	39분17초
④	河正鎭	(경남)	40분18초

◇각팀간 기록차

①~②	4분47초
②~③	31초
③~④	1시간10분38초

협찬 프로-스펙스 국제상사(주)

印度아시안게임 카운트다운 ⑪

테니스

7개종목에서 金메달 2개 무난
잔디코트 적응력 길러 자신
中共과 홈팀 印度와 互角勢

테니스에 거는 메달의 기대는 크다。구기종목으로서는 비교적 많은 7개의 금메달을 갖고 있다。작년10월의 아시아선수권대회(홍콩)서는 남자단식 우승、복식 준우승에 여자단식우승과 복식3위를 따내고 혼합복식에서는 1、2、3위를 휩쓰는 호성적을 보였다。이런 前歷때문에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고있는 테니스계는 섣불리 금메달을 낙관하지는 않지만 1~2개는 확신하고 있는듯하다。

한국 테니스대표팀 10명(임원2、선수8)은 잔디코트의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9월부터 1개월여의 濠洲전지훈련을 갖는등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

테니스 종목은 남녀 각 단체전과 단식、복식、혼합복식등을 합쳐 모두 7개。남자는 16개국、여자는 7개국이 참가하며 20일부터 단체전、25일부터 개인전을 갖는다。

한국 남자팀은 이번대회가 첫출전이며 여자는 74년대회서 단체전、78년에는 李德姬와 楊正順이 단복식을 제패、2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었다。

◇全琰大 ◇薛景敬 ◇金壽玉 ◇金春浩 ◇李우룡

아시안·게임에서는 매번 코트의면(面)이 한국선수들에 핸디캡이 되고 있다。지난 방콕대회서는 시멘트코트로 애를먹었는데 뉴델리대회서는 또 잔디코트에서 열리게 돼 불리한 입장。

잔디코트는 불규칙 바운드가 많아 하프·발리에 능숙해야 한다。클레이·코트에서만 게임을 해온 한국선수들에게는 덜익숙한 코트이다。

한국선수단은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濠洲전지훈련중 濠洲코치의 지도하에 강도높은 잔디적응훈련을 했으며 이결과 어느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崔富吉 남자대표팀 코치는 말한다。

金메달 유망종목은 여자단복식。지난 방콕대회출전 경험을 가진 金壽玉과 파워가 좋은 薛景敬의 활약이 기대를 모으고있다。

금메달고지에 가장 큰 장벽은 中共。지난 7월 美페더레이션컵대회서 日本을 완파할만큼 수준이 높아진 中共은 후·나(胡娜)의 미국망명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후·나와 비슷한 수준의 선수가 더럿 있다。

남자부에서는 지난회 3관왕인 인도네시아와 홈코트의 印度가 강적이다。한국은 지난3월 데이비스컵 동부예선에서 인도네시아에 다 이긴 게임을 3-2로 빼앗긴 적이 있어 인도네시아 선수들을 집중연구、전법을 익혀 놓았다。

국내최강 全琰大의 부상으로 전력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나 컨디션에 따라 全琰大 대신 金春浩를 단식에 출전시키고 全琰大는 복식과 혼합복식에 기용할 계획이다。

또 全琰大 金壽玉 金春浩 申順浩로 짝을 이룰 혼합복식도 아시아 선수권을 휩쓸었던 기세를 몰아 볼 유망한 종목이다。【金奭根기자】

◇한국선수단 ▲임원=崔富吉 趙大濟 ▲선수=全琰大 李우룡 宋東煜 金春浩(이상 남자) 金壽玉 金明淑 薛景敬 申順浩(이상여자) 【끝】

현지適應훈련 돌입
한국선수단、僑民환영속 安着

【뉴델리=한국신문공동취재단】 제9회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한 한국선수단 4백 […]명은 11일 하오7시50분(한국시간) KAL전세기편으로 뉴델리공항에 도착、선수촌에 여장을 풀었으며 12일 상오 […]

◇한국 선수단이 뉴델리 공항에 도착한후 印度거주 한국동포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고있다。【뉴델리=한국신문공동취재단】

亞洲경기행사 延期
한국선수단 入村도

럭비代表선수 확정

延世大축구감독 金知星씨

구독신청은 533—2361

◇레너드㊥가 은퇴발표에 앞서 前세계헤비급 챔피언 알리㊧、앤질러·먼디 트레이너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있다。【볼티모어AP聯合=特約】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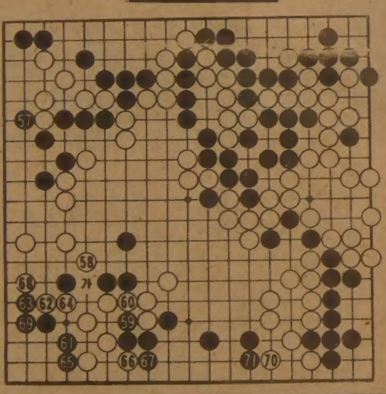
朴婉緒 作　金光培 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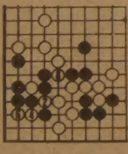
안개속의 집⑱

名人戰 第14期 挑戰者決定리그

第3局第9譜 (각5시간·덤5집반)

白(4段) 李相溱　黑(7段) 河燦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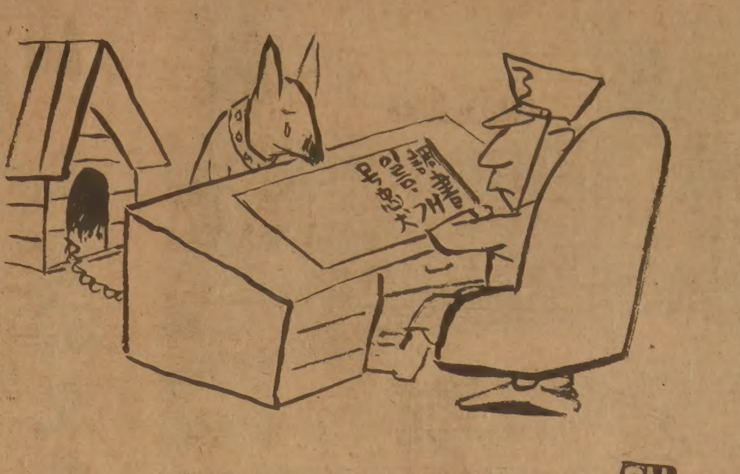
白軍 계속猛攻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안의섭 時事칼럼



"어떻게 된건지 사실대로 말해봐…" 안

어떻게 보면 「보류」 같고… 어떻게 보면 「구류」 같고… 안

신문에 안난 現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소매치기를 당한 경험이 있거나 소매치기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을 것이다. 또 남의 얘기를 들어 어렴풋이라도 소매치기의 악랄성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막상 소매치기 현장을 목격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으로 맞서야 할는지 당황하기 마련이다. 덤벼들어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야 하느냐, 아니면 모르는체 피해가야 하느냐 하고 말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이 달려들어 싸우는 것으로 그 해답을 내려 줬다.

이번주 「기자수첩」을 펼친다.

일년 고생한 곡식 슬쩍

▲남의 논에 베어둔 벼를 몰래 탈곡, 훔쳐온 어자들만의 벼도둑일당이 쇠고랑을 찼다.

慶南 金海경찰서는 박분연씨(여·27·김해시구산동54)와 안화수씨(여·31·부산시북구대저동1、07)동 2명을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5시까지 김해군녹산면 미음리 17 김원조씨(43)논에서 벼베기를 마치고 말리기위해 세워 둔 벼를 밤새 몰래 탈곡해 12가마를 훔친것을 비롯, 지난 28일까지 김해군 가락면, 이북면, 주촌면등을 돌아다니며 4차례에 걸쳐 70여가마의 벼를(1백만원상당)훔쳐왔다는것.

處女피해자에 쫓긴 날치기, 車道에 뛰어들어 輪禍

▲날치기 범인이 피해자가 뒤쫓아 오자 당황한 나머지 차도로 뛰어드는 바람에 달려오던 택시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가료중이다.

지난달29일밤 10시15분께 서울영등포구 양평2동6가21 金浦가도에서 羅모군(17·무직·주거부정)은 직장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崔英玉양(27·회사원·양평동6가95)의 핸드백을 낚치기해 달아나다 崔양이 뒤쫓아 오며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당황한 나머지 차도로 뛰어들었다.

마침 金浦공항에서 시내쪽으로 달려오던 서울1사5583호 포니택시(운전사 최덕홍·40)에 치여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범인 羅군은 병상에서 『처음에는 앞에 가는 아가씨가 멋있어 말을 걸려고 팔을 잡았는데 崔양이 세차게 뿌리치면서 가방을 떨어뜨려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후회.

술값시비 살인

▲지난30일새벽2시반께서울은평구 녹번동27의7 청궁살롱에서 술값시비끝에 손님 胡聖永씨(27·무직·은평구녹번동28의34)가 흉기로 살롱종업원 趙판휘씨(24)와 金英錫씨(21)등 2명을 찔러 趙씨는 그자리에서 숨지고 金씨는 중상을 입었다.

살롱지배인 張明鎬씨(30)에 따르면 이날새벽1시반께 胡씨가 혼자 들어와 맥주3병과 안주 한접시를 시켜 먹은뒤 술값이 없다고해 종업원 金씨와 시비가 벌어졌다.

胡씨는 술값대신 옷을 모두 벗어주고 내의바람으로 술집에서 1백50m 떨어진 자기집으로 달려가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와 가게문을 닫으려던 金씨의 등을 찌르고 이를 말리던 趙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했다는 것이다.

옷사러 상경한처녀 택시기사합세 털려

▲지난1일 새벽6시께 서울역앞 택시정류장에서 安明淑양(25·상업·경북경산군경산읍삼북동158)이 번호미상의 택시를 탔다가 30대 운전사와 앞자리에 탄 30대청년등 2명에게 자기앞수표 10만원짜리 2장과 현금9만원등 29만원을 강탈당했다고 永登浦경찰서에 신고했다.

慶北 慶山에서 옷가게를 하는 安양은 옷을 구입하려고 우등열차 편으로 이날 새벽 5시53분께 서울역에 도착, 택시를 타고 남대문시장을 향해 출발하자마자 운전사 옆자리에 탄 30대 청년이 흉기를 들이대면서 운전사와 합세, 손지갑에 든 금품을 빼앗고는 麻浦구 난지도 부근까지 강제로 태워가 인적이 드문 곳에 내려 놓고 차번호판의 불을 끈 채 달아났다는 것이다.

安양은 부근을 지나가는 청소차를 타고 永登浦경찰서에 와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배 이탈한 기관장구속

▲東草지구 해양경찰대는 東草항 소속 어선 태흥호(62톤)기관장 金福川씨(46)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선주와 총 어획고의 4·25%를 받기로 하고 태흥호 기관장으로 취업,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鬱陵島 근해에 출어중 기관실을 이탈, 오징어 20급(10만원상당)을 선주 몰래 팔았다는 것.

해경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관장이 사욕을 취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金씨를 중시했지만 어부들은 통상출어중 잡은 고기의 일부를 집으로 가져가거나 팔아 용돈으로 쓰고있는데 金씨가 입건됨으로써 새로운 선례를 남겼다고 크게 위축돼 있다.

<그림·權大雄>

감나무에올라 감따다 떨어져다친 여인

▲감 주산지인 慶北尙州지방에는 최근 부녀자들의 감나무 추락사고가 속출해 전전긍긍.

지난달 26일 하오3시반께 상주군 화동면 양지리 金玉蘭씨(여·32)는 마을앞 감나무밭에서 감을 따다가 나무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떨어져 척추를 크게 다쳤으며, 또 지난24일 하오2시께는 화서면 율림리 양분심씨(여·56)가 뒷산 감나무에서 감을 따다 나무에서 떨어져 척추골절상을 입는등 지난1주일동안 尙州郡 관내에서는 모두 10여명의 부녀자들이 감을 따다 떨어져 다쳤다.

이같은 부녀자들의 추락사고는 탈곡등으로 남자일손이 부족, 대신 감을 따러 나서기 때문이라고.

밤길 고교생 폭행당해

▲지난달 27일 밤9시15분께 서울永登浦구道林2동264 노인정앞 골목길에서 朴贊奎군(16·용산공고1년)등 고교생 3명이 20대 불량배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이중 朴군은 흉기에 등을 찔려 중상을 입었다.

朴군의 친구 白운직군(17·동양공고1년)에 따르면 이날 자기집에 놀러온 朴군등 친구2명이 집으로 돌아간다기에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바래다주러 가던 길에 노인정앞에서 20대청년 4명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 청년들은 학생들이 왜 밤늦게 돌아다니느냐. 너희 학생들과는 감정이 좋지않다』면서 골목으로 끌고가 집단폭행을 한뒤 이들중 한명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내고향
통닭집
•칼국수 •오뎅 •통만두
☎537-0432
658½ BLOOR ST. W.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NOON~4AM
일 :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아×영 남쪽)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민 병 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WILL YOU ACCEPT THE CHARGE?

한국의 모 무역회사의 N.Y.지사 사원이 업무상 급한 용건으로 서울의 본사에 국제전화를 걸게되었다.

우선 '0'번을 돌려 operator(교환)를 불러서 「서울 부담으로 전화를 걸겠읍니다」 I'd like to make a collect call. 이라고 한 다음 교환이 물어 오는 상대방 번호 를 간단한 대답을 끝낸 후 끊지말고 기다리라는 교환의 말대로 한참을 기다려도 무소식, 알고보니 교환이 There's a collect call from Mr. Gim. Will you accept the charge? (미스터 김으로부터 콜렉콜 인데요. 요금을 부담하시겠어요?) 라고 계속 이야기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한 서울 본사 직원이 Pardon me? 만 연발하여 결국 통화를 못하게 되었고, 덕택에 큰 거래의 계약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

collect call이란 「전화 받는 쪽에서 요금을 부담하는 통화」를 말하는것으로 상당히 편리한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전화 요금도 그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업무가 시작되는 아침 8시~오후 5시까지가 제일 비싸고 오후 5시부터 밤11시까지는 좀더 싸지고 (35% discount) 밤11시부터 다음날아침 8시까지가 가장 요금이 싸다. (60% discount)

A : Hello, I'd like to make a collect call to Seoul, Korea.
B : What number, please, and to whom do you wish to speak?
A : I'd like to speak to Mr. Gim at 783-2192.
B : What's your name, sir?
A : My name is B-O-K. Bok.
B : Hello, Mr. Gim? There's a collect call from Mr. Bok. Will you accept the charge?
A : 대한민국 서울로 콜렉 코올을 신청하겠읍니다.
B : 몇번, 누구와 통화하시겠어요?
A : 783—2192, 미스터 김을 바꿔주십시오.
B :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A : B-O-K, 박입니다.
B : 여보세요, 미스터 김이세요? 미스터 박으로부터 콜렉 콜입니다. 요금을 부담하시겠읍니까?
A : Hi, Mom.
B : John, this phone bill is much too high!
A : Why? What's wrong?
B : There are too many long distance calls on it.
A : But my girlfriend wants me to call her.
B : Then ask her to accept the charge, and call her collect!
A : 안녕하세요, 엄마
B : 잔아, 전화 요금이너무많구나!
A : 왜요? 뭐가잘못됐어요?
B : 장거리 전화가 너무많구나!
A : 하지만 제여자친구는 자기한테 전화해주기를 바라는걸요.
B : 그러면 그애더러 요금을 부담하도록하고 콜렉콜로 전화를 걸려므나.

make a call : 전화를걸다. phone bill : 전화요금. a long distance call : 장거리전화. would rather+동사의 원형 : …하는 편이낫다. 여기서would는 소망을 나타내며 wish와 같은뜻이다. Ex. I would rather go than stay. 머물러 있기 보다는 가는게 낫겠다.

구입처 :
B. C. MIN,
1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312) 966—4050
책: 제1권(12불), 제2권, (12불), 제3권(12불)

連載 소설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肉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99

지난줄거리

거나하게 술 취한 명식이와 춘천은 무교동 바닥에서 악을 썼다. 잘난 놈 덤벼라, 서울놈들 다 덤벼라고. 경찰관이 쫓아 왔지만 사법고시 합격기념으로 경찰관 입회아래욕 한번 더하고 돌아왔다. 은주누나와 또 한차례 술잔치를 벌였다. 명식이는 일본인의 노리개로 한국처녀 팔아먹는 조직을 파 소탕해 줄것을 부탁했고 춘천은 손가락까지 걸었다.

명식이가 부탁한 처녀 장사꾼들의 루트를 추적하려면 나 혼자 힘으로는 벅찬것 같았다. 우리나라 처녀들을 계획적으로 일본에 팔아 넘길만한 조직이라면 쉽게 꼬리를 드러낼 위인들이 아닐것이다.

아무래도 그런 쪽에 밝은 애들이 한두명은 필요할것 같았다.

『여자장사 하면 애들 없을까? 좀 또릿또릿한 애면 좋겠는데.』

『경식이가 그쪽 밝지.』

친구녀석이 수첩을 뒤져 가며 애들을 찾아나갔다.

『경식이하고 일본통 두어명만 보내줘라. 나머지는 내가 구할테니까.』

『개들 건들땐 조심해야 된다. 젤싸게 뛰는 애들이니까. 일본까지 쫓아가 잡을수도 없고…여기도 꽤 거친 애들하고 손잡아서 골치아픈 일이 좀 생길거다.』

친구 녀석은 가능하면 손대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여자장사 하는 애들이 지저분하다는 걸 알기 때문인 것 같았다. 보통 주먹 쓰는 애들과 질적으로 다른 부류임엔 틀림이 없었다. 사내로서 무슨 할짓이 없으면 여자 팔아먹는 짓을 할까.

더구나 쪽발이에게 우리나라 처녀들을 팔아먹는 행위를 할 정도라면 알만한 부류일 게 빤했다. 일본의 허름한 깡패조직에게 여자를 넘겨주는 애들 애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피해자의 사연을 알게 된 것은 처음이었다.

일본이란 나라.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나는 감정적으로 혼자라도 쳐들어가고 싶은 나라였다.

경식이 녀석이 약삭빠르게 생긴 애들 두명을 데리고 왔다. 훤칠한 키에 잘 생긴 녀석이었다.

『네가 걔들 통솔 빤히 알겠지?』

경식이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손 뗀지 이년 됐읍니다. 사내새끼가 할짓이 아닌것 같아서 말입니다.』

나이는 나보다 두 서너살 위인 것 같았지만 말씨를 공손하게 했다. 선배들이 내게 깍듯하게 대하기 때문이었다. 어떤 판에선 나이보다는 특별하게 인정되는 서열로 따지게 되는 것이었다.

『넌 어떤 일을 했어?』

『바람잽이였읍니다. 제가 꼴값이나 하게 생겼든지 여자애를 후려오는 일을 맡았었지요. 일본에 파견할 문화교류 특기자를 찾는다고 사기치고 다니는 거죠. 춤 잘 추거나 노래를 간들어지게 하는 애들이면 훨씬 비싸게 받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이라도 안가려요. 일본 현지에 가서 석달간 춤과 노래를 배우고 파견된다고 사기 치면 그만이니까요.』

『그래 가지고 속는 애들 있니?』

『많아요. 웬만하면 넘어가죠. 더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은 사무실에서 춤을 한달쯤 가르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가면 한달에 최저 백오십만원에서 최고는 삼백원까지 받게 된다고 해버려요. 떠날 때 한달치 선금을 미리 받기 때문에 공짜로 갈 수 있다고 하죠. 그래놓고 야금야금 옷값이니 수속비니 협회가입비니, 해서 비행기값 정도는 뜯어먹죠. 더 심한 놈들은 아예 일본대학에 넣어 준다며 기백만원씩 말아먹는 놈들도 있어요. 외국에 미친 애들이 많아서 정말 말아먹기 쉬워요. 어차피 그쪽에서 초청장도 오고 비행기 표도 오는 거니까 이쪽 애들은 꿩먹고 알먹는 재미가 있죠.』

경식이는 그들의 내막을 깊숙하게 아는 편이었다.

『재들은 뭘 하던 애들이냐?』

경식이가 데리고 온 두 애를 가리켰다. 녀석들은 부동자세를 취한채 경식이와 내 눈치를 살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인데 손이 빠른 애들예요. 형님이 필요하실 거고 저도 애들을 데리고 다녀야 위험하지 않죠.』

『그럼 네가 우선 데리고 다녀라. 그리고 이 약도에 있던 애들이 어디에서 문을 열고 시작하는지부터 알아오고 어떤 애들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철새처럼 돌아다니는 놈들이지만 본거지가 있을 거다. 왕초의 계열이나 개들의 규모, 일본애들은 어떤 애들이며 일본현지의 조직은 어떤 것인지를 다 알아올 수 있을까?』

『글쎄요. 붙어봐야 알겠지만 그속을 제대로 캐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도 얼만 해주고 돈만 받았지 그 위는 안개같았어요.』

쪽발이하고 여자장사하는 놈들때문에 청춘을 망쳐…

경식이는 그런 애들이 얼마나 비밀을 중요시하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했다.

『어렵더라도 네가 캘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직접 나설테니까. 절대 냄새 피우지 마라. 안되면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알았읍니다. 저희를 한번 믿어보세요. 형님이 저에게 일을 시켜주셔서 영광입니다.』

『보수도 없다. 일 끝나면 한잔 사는것 밖에.』

『압니다. 그런 걱정은 마세요. 형님을 알게 된 것만도 영광입니다.』

『내가 준비해야 할일 있으면 미리 얘기해라.』

나는 어디서 부터 손을 써야 할지 난감했다. 잘못하면 일본으로 달아난다는 말이 영 가슴에 걸렸다.

『글쎄요. 애들이 워낙 지저분한 애들이라 말썽이 생기면 벌레처럼 덤빌 겁니다. 우리쪽이 세게 나가면 일본으로 뛸 거구요.』

『여권 가졌냐?』

『피래미들은 없지만 큰애들은 아예 재일교포 행세하고 다녀요.』

『여권 빼내면 못뛸거 아냐?』

『그렇죠.』

경식이가 눈치 빠르게 대답했다. 그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구석에 서있는 녀석들이 입을 열었다.

『개들은 전문가예요. 여권도 위조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정도 가지곤 못막습니다.』

『그럴테지. 여권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애들은 어디 있어?』

『사방에 깔렸대요. 다 뒤질 수 없잖습니까. 우선 캐들어가보면 위조여권 대주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알수 있을 겁니다. 계집애를 빼내려면 위조여권 만드는 애들이 붙지 않을수 없을 겁니다.』

『아뭏든 신경을 끄지 마라. 위험하다 싶으면 나를 팔아서라도 모면하고 봐라. 도망가더라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이 다치면서까지 일을 하고싶진 않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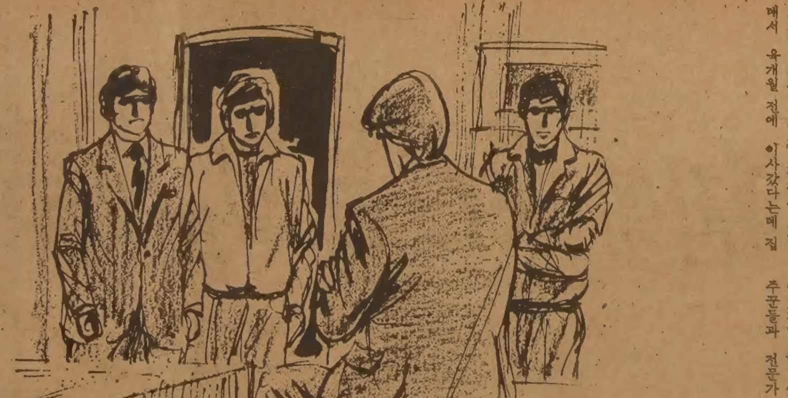
『그럼 가봐라. 먼저 진치고 있던 데서 육개월 전에 이사갔다는데 집주인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더라.』

『장소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걱정마세요.』

경식이와 일행은 내가 있는 연락처를 확인한 뒤에 밖으로 나갔다. 처음 만난 애들이었지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애들이 엉뚱한 녀석을 골라서 보내주었을 리가 없었다.

나는 하루 종일 뛰어 다니며 선불리 접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피라미 서너명 잡아채는 건 당장이라도 할 수가 있었지만 왕초 녀석을 잡아내려면 시간과 준비가 필요했다. 철저하게 은폐된 조직이어서 쉽사리 꼬리를 내밀지 않았다.

애들한테 신세를 지지 않을 작정이었지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재추꾼들과 전문가 몇 녀석을 지원받아 경식이네 일행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일을 나누어 시켰다.



하나님.

뿌리 좀 확 뽑아버리게 해주십쇼.

일제치하에서 꽃같은 여자를 일본 군인들의 노리개로 던져 주었으면 그걸로 그만 이 땅의 여자를 괴롭힐 일이 지금까지 신종 정신대를 편성하여 쪽발이의 노리개를 만들어 주는 일이 과연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난다 긴다하는 우리나라의 늙은 여자들 가운데 일제치하의 앞잡이가 되어 여학교마다 찾아다니며 아리따운 우리 처녀들을 정신대로 보내자고 추장한 여우가 어디 한둘입니까? 만약 여학생 가운데 정신대로 뽑아보내지 않으면 선생을 문책하고 학교를 못살게 군 개같은 여자들이 지금도 이 땅의 여성지도자입네하고 잘 처먹으며 살아 있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잖습니까.

황국신민이 되자고 떠들기만 한 여우들이라면 차라리 한말이나 없겠읍니다. 여학생들까지 정신대로 팔아먹은 계집들이 어찌하여 현재도 이땅의 여성지도자며 정말 광복의 날을 위해 싸워온 애국자들의 고통을 딛고 돈갈한 여우들이 진짜 나라를 위해 몸바쳤거나 죽음을 무릅쓴 사람들보다 수천배씩 잘 살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쪽발이가 되고 싶었으면 재가 먼저 치마 벗어들고 쪽발이를 위문했어야 할 게 아닙니까?

하나님.

벼락 줬다 뭐에 쓸거요?

쪽발이들이 한국계 정신대를 얼마나 참혹하게 다루었는지 아실 거아닙니까.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이란 말요?

여고졸업하고 취직하러 올라왔다가 허영에 들떴지

이틀이 지난 밤에 경식이 일행은 온미를 일본에 팔아먹은 한일교류문협이란 그럴듯한 사기집단의 행방을 찾아가지고 왔다. 다른 애들도 유사한 단체나 개인조직을 체크해 왔다.

『수고했다. 드러난게 이정도 뿐이냐? 생각보다 작잖아.』

나는 경식이와 다른 애들이 만들어온것을 메모지에 적으며 물었다.

『겉으로 드러나는건 그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파고들어갈 수가 없읍니다.』

경식이는 그 정도라도 캐낸수있었던것은 옛날 동료를 만났기 때문이라고했다. 이번건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비밀을 유지하게 위한 장치가 더 견고해져서 쉽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방 안엔 열두서너명쯤 되는 애들이 모여앉아서 각자 이번 사건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의논하고 있었다. 다른 조직같으면 애들을 동원할것도 없이 치고 들어갔을 일이었다.

그러나 일본에 여자를 팔아넘기는 이 한일교류문협이란 비밀단체는 위조여권과 유사시 뛸 수 있는 만반의 준비와 철저한 비밀조직으로 한꺼번에 잡아내기는 거의 어려운 집단이었다.

『의견을 애기해봐라. 너희들같은 전문가들이 꿍꿍 앓는 걸 보니 그녀석들이 대단하긴 한 모양이구나.』

나는 애들이 삼십여분이 넘도록 뾰족한 의견을 내놓지 않자 이렇게 말했다. 생명을 걸고 이런 여자장사를 하는 애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묘책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맞서는 놈들이라면 한방에 해내겠지만 쪽제비처럼 구멍 속으로 뛰는 놈들은 어려워요.』

한 녀석이 툴툴거렸다. 녀석의 말은 맞는 말이었다. 정정당당하게 덤비는 애들이 아니라 여차하면 뛰는 애들을 상대하려면 도망갈 길을 미리 막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는 형편이었다.

『쓸만한 여자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경식이가 궁여지책으로 한마디 던졌다.

『그건 위험해. 여자를 가담시키지 마라. 만약 도로 꺼내올수없는 형편이 되면 감쪽같이 팔리게 된단 말이다.』

나는 경식이의 의견에 반대를 했다.

은숙이를 내가 끌어넣었다가 발가벗겨져 기둥에 묶였던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오싹한 느낌이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앤데 형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애가 있어요. 쪽발이라면 이를 가는 애입니다.』

『누군데?』

『현지처 노릇하다가 쪽발이한테 되게 당한 앤데 의리도 있고 형님을 되게 좋아해요. 자원하는 애니까 한번 써먹어보죠. 일본에 한번 팔려갔다가 용케 도망나온 저도 있어요.』

경식이는 미리 구해놓고 차마 말 못한채 뜸을 들였던것 같았다.

『나이 많잖아?』

『아주 어려 보여요. 개들이 눈독 들일만큼 생겼어요. 만약 일이 잘못돼서 일본에 팔려가도 도망나올 자신이 있대요. 그 자식들 생각하면 이가 갈려서 꼭 제손으로 파내고 싶다는 앱니다.』

나는 잠깐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앞장 서주는 여자가 있다는 건 기회였다. 최악의 경우엔 놓치더라도 여자애만 구해내면 그만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차마 여자를 그런 위험지대에 보낼 수가 없었다.

『형님, 한번 만나 보세요. 그러면 알 거 아닙니까. 쪽발이하고 여자장사하는 애들 때문에 청춘을 망친 계집앱니다. 개한테 복수할 기회라곤 이번같은 기회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고졸업하고 취직하러 올라왔다가 허영에 들떴다곤 하지만 쪽발이에게 팔려간 신세를 형님, 한번 만나라도 보세요.』

경식이와 애들이 그. 방법밖에 없다며 자꾸 나를 졸랐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최악의 경우엔 여자애만 구하고 도망가더라도 할 수 없다는 각오만 한다면 쉽게 일을 꾸밀 수 있을 것 같았다.

『데려와라.』

『형님, 고맙습니다. 이젠 걱정없어요. 애가 잘할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같이 있던 애를 통해서 손쉽게 그쪽으로 넘겨줄 수가 있어요.』

『알았다.』

애들이 이튿날 다시 모이기로 하고 헤어졌다. 경식이는 전화통을 잡고 우리가 있는 곳의 약도를 불러주고 있었다. 나는 괜히 가슴 끝이 서럽게 느껴졌다. 한번 큰 피해를 맛본 여자가 과거를 잊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여 뿌리를 뽑으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처절하게 당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 그녀의 처절한 고통도 한꺼번에 풀어주자. 우리들 손으로 그런 집단을 모조리 없앨 수는 없지만, 한사람의 피해자라도 줄이기 위해선 어렵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비상수단을 써보자는 생각이었다.

밤 늦게 찾아온 여자. 그런 모진 꼴을 당하고도 티 없이 맑은 눈동자를 가진 여자였다. 나이는 경식이 말처럼 앳되게 보였다. 약간 노란물을 들인 듯한 머리결을 빼면 수수한 여자티가 났다.

『안녕하세요. 저 윤희예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거 반갑습니다. 경식이한테 얘길 들었읍니다. 괜한 일로 폐를 끼치게 됐읍니다. 난감한 문제라 궁여지책으로 만나 보게 해달라고 졸랐지요.』

『다 알고 왔으니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저 혼자라도 그 일이라면 해보고 싶었어요. 저처럼 억울한 여자가 더 생겨서는 안돼요. 거긴 지옥였어요. 감금상태에서 말도 안통하고 억지로 손님을 받아야 하고… 말 안들으면 별짓을 다하는 지옥였어요. 꼭 저를 시켜주세요. 부탁입니다.』

『혹시 나를 전부터 알았읍니까?』

『그럼요. 김포에 있었으니까요.』

『그럼 펨치 형님…』

『그분 아니었으면 전 벌써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제 은인예요. 그 오빠가 항상 춘천씨 말씀 하셔서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뭐하고 있어요.』

『펨치 오빠가 도와줘서 조그만 가게 하나 하고 있어요. 술가게지만 보람은 있어요.』

『장사 못하게 될텐데….』

『괜찮아요. 저도 좋은 일 해보고 싶어요. 정말예요.』

『그럼 나보다 더 잘 아실테니까 윤희씨가 작전을 짜봐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경식씨가 우선 저를 그쪽에 닿게 몰래 신호만 보내면 그 담엔 제가 덥석 물으면 돼요. 밖으로 연락하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요.』

『그건 돼요. 이쪽에 그런 전자장치를 하는 전문가가 있으니까요. 화장품이나 목걸이같은, 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준비를 해보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여자를 해치지 않아요. 상품이니까요.』

모든 작전은 윤희가 짰다. 윤희는 한번 끌려갔던 경험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짤 수 있었다.

『좋아요. 결코 윤희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죠. 장소를 대충 알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항상 지키고 있을 겁니다. 신호는 가장 섬세하게, 말하지 않고 바늘이나 손톱 끝으로 눌러서 할 수 있게 만들께요.』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전 춘천씨의 실력을 믿으니까요.』

윤희는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하고 돌아갔고 나는 윤희의 목걸이를 특수하게 만들 것을 부탁했다. 10개의 버튼을 지닌 특수장치로 내가 원하는 신호만 보내면 우리쪽이 가지고 있는 장치로 그쪽 상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애들은 부산하게 부속품을 구해다가 특수목걸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밤 새워서라도 끝내라.』

『걱정 마십쇼. 아주 근사하게 만들테니까요. 이제 특수소형마이크만 가져오면 끝납니다.』

애들의 작업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졌고 작전명령도 제대로 짜여져 나갔다.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살림의 지혜

바다의 우유…「굴」

바다의 우유. 別味의 굴料理: 유, 굴이 제철을 맞았다. 어패류중 여러가지 영양소를 가장 이상적으로 함유하고있는 굴은 빈혈이나 병후 회복에 효과적이고 특히 노인이나 병약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식품이다.

굴 1백g에 들어있는 일반성분을 보면 열량96칼로리·단백질10g·지방3·6g·탄수화물5·1g·칼슘40㎎·철8㎎·인1백40㎎·비타민A1백IU·B1 0·3㎎·B2 0·2㎎·나이아신 3㎎·C5㎎등이다.

굴은 또 날것을 그냥 먹기도 하지만 김장양념에서부터 젓갈·밥·튀김·젓갈·볶음·전에 이르기까지 조리방법도 다양하여 주식, 부식, 간식용으로 이용할수가 있다.

굴을 고를때는 겉으로 보아 유백색을 띠고 미끈하며 통통한 것이 신선하고 손가락으로 눌러보았을 때 탄력이 있고 바로 오그라드는 것이 싱싱하다.

굴을 다룰때는 찬 소금물(3%용액)에 담가 조심스럽게 껍질과 잡티를 가려내고 헹구듯 씻은 다음 조리나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뺀다.

냉수에 씻으면 삼투압관계로 굴의 영양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

겨울철에 제맛을 내는 굴요리 몇가지를 소개한다.

▲굴 밥

(재료) 굴 4백g, 쌀3컵, 멸치국물 3·5컵, 콩기름 1큰술, 양념간장·진간장 1큰술.

(만드는 법)

①굴은 엷은 소금물에 씻어 물기없이 해놓는다.

②무우는 채쳐서 씻어 건져놓는다.

③남비에 콩기름을 두르고 굴과 무우를 넣고 볶다가 씻어놓은 쌀과 멸치국물·진간장을 넣고 보통밥처럼 지어 뜸을 푹 들인다.

④각자 그릇에 밥을 담아 준비한 양념간장에 비벼 먹는다.

※향긋한 굴냄새와 구수한 무우맛이 어울려 영양만점의 별미요리가 된다.

▲굴 튀김

(재료) 양식굴 4백g, 감자 1개, 밀가루 ½컵, 빵가루 1·5컵, 달걀 1개, 당근1개, 양배추, 소금, 후추, 초간장, 빵가루 각 약간씩.

(만드는 법)

①큰 굴을 골라 엷은 소금물에 씻어 물기를 뺀후 소금과 후추를 조금 뿌려놓는다.

②①의 굴을 밀가루에 굴려 달걀물을 씌운 다음 빵가루를 골고루 묻혀 섭씨 170도의 콩기름에 튀겨낸다.

③감자는 굵게 채쳐 물에 서너번 씻은 다음 굴을 튀겨낸 다. ④채친 양배추와 당근은 다시 한번 씻어 물기를 뺀후 굴튀김, 감자튀김과 함께 날것으로 담는다.

※간식 술안주로 좋다.

새우표 청년회의소 대회기념

체신부는 제37차 국제청년회의소 세계대회 기념우표(사진)를 3일 발행.

체신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 대회를 기념하고 국제교류촉진과 세계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기 바라 발행한 이 기념우표는 대회마크와 세계로 퍼지는 JCI상징을 도안으로 한 60원짜리 4백만장이 4도색.

「신문에 안난 現場」

母女속이고 실명복안 수술비 네다바이

아파트사려 주민등록·인감위조타 덜컥

朴군을 찌르고는 도망쳤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부는 지난27일 李洙得씨(24·행상·대구시북구노원3가925)등 도박협의로 기소된 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연령·직업·재산정도·친분관계·도박경위 및 방법과 판돈등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심심풀이로 오락삼아 화투놀이를 한 것이므로 도박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李씨등 피고는 지난 81년10월14일 하오2시반께부터 30분동안 대구시북구노원3가에 있는 무궁화유원지앞 공터에서 1백~2백원씩 걸고 10여회에 걸쳐 「육백」이라는 화투놀이로 점심내기를 하다 경찰에 적발돼 大邱지검으로부터 벌금5만원씩 약식기소됐었다.

1심인 大邱지법 단독재판부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 2심인 대구고법합의부에서도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상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

▲지난26일하오4시께 서울永登浦구 永登浦동94의1 38 우성정밀공업사 작업장에서 이 공장 선반공 朴起鵬씨(27·강서구신정2동144)가 선반에 물려져 회전하는 철봉에 옷소매가 말려들어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그 자리서 숨졌다.

이날 사고는 이 공장대표 徐鋼燮씨(37)가 2m짜리 6각철봉을 자르기위해 선반에 물려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선반옆에 있던 朴씨를 보지못해 일어났다.

▲지난25일하오1시께 서울銅雀구新大方동 396의6 Y다방에서 崔모양(21·회사원·서울 도봉구신창동)이 28세가량의 청년에게 눈수술비 60만원을 네다바이 당했다.

범인은 한쪽눈을 실명한 崔양이 복안수술을 받기위해 지난5일하오 서울대학병원에 갔을때 『영동포C병원 안과과장이 선배인데 싼값으로 수술을 받게해주겠다』며 접근, 수술비를 마련해오게 했다는 것.

崔양은 고향인 江原도揚口군에 있는 자기집에 연락, 어머니가 수술비 60만원을 가지고 25일 정오께 서울 馬場동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자 범인은 崔양 모녀를 新大方동 Y다방까지 데려가 『병원에 접수를 시키고 올테니 기다리라』며 수술비를 받아쥔 뒤 달아나 버렸다.

경찰은 동일수법 네다바이 전문범들의 소행으로보고 1백78㎝가량의 키에 얼굴이 넓적한 편인 서울말씨를 쓰는 범인을 찾고있다.

고속버스서 옥동자 순산

▲지난달 25일하오 서울을 떠나 江陵으로 가던 중앙고속 경기6가2675호 버스(운전사 李忠雨·45)안에서 승객 강순엽여인(32·강원도 동해시 묵호동14통3반)이 옥동자를 분만.

이날하오7시반께 버스가 영동고속도로의 둔내휴게소 앞을 지날무렵 갑자기 진통을 일으켜 버스는 둔내휴게소 여종업원들의 간호를 받으며 남자아이를 순산했는데 산모와 아기는 모두 건강하다고.

산모는 지난24일 全南麗水에서 있은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한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버스승객들은 즉석에서 3만7천원을 거둬주었고 버스회사에서도 「처음있는경사」라며 현금10만원과 미역·쌀·의복등을 마련해 줬다.

▲서울江南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전 江東구청 잠실1동사무소 민원담당직원 朴用恒씨(28)를 뇌물수수및 공문서위조등 협의로, 잠실1동16통장 李亨運씨(30)와 부동산 브로커 金興源씨(39·서울강동구가락동시영아파트29동506호)등 2명을 뇌물공여및 공문서위조교사 협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울江東구蠶室1동 금성부동산대표 梁基弘씨(35)와 강남구대치동 목화부동산대표 朴윤호씨(30)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동사무소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8월1일 蠶室1동 모 음식점에서 李씨와 달아난 朴씨로부터 아파트분양신청때 2순위인 한국주택은행 발행 주택선매통장주인 蔡모씨(36·경기수원시화서동)등 지방에 사는 3명이 5년전부터 서울에서 살아온 것처럼 주민등록등본을 꾸며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15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李씨등은 이 주택선매통장을 1장당 1백30만원을 주고 구입했으며, 李씨는 이중 蔡씨의 허위주민등록등본으로 지난 9월8일 서울江南구開浦동 주공3차아파트 1가구를 분양받았다는것.

金興源씨는 지난8월중순 京畿도議政府시에서 具모씨(37·의정부시의정부동)의 재형저축통장을 2백만원에 구입해 달아난 梁씨에게 20만원을 주고 청약순위를 1위로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한뒤 朴씨가 허위로 만든 具씨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지난 8월19일 서울江南구開浦동 주공아파트1가구분을 분양받았다는 것이다.

사건記者 수첩

퇴근시간 핑계, 안받은 요금 가산금붙여

▲지난25일밤9시반께 서울鍾路구鍾路2가 금강양화점앞 택시정류장에서 소매치기현장을 목격, 범인들을 잡으려던 조상기씨(41·서울강동구길동359의13)가 3명의 범인들이 휘두른 면도칼에 찔려 배, 손목등을 28바늘이나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

조씨는 직장동료 명재선씨(53)와 함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위해 택시를 기다리다 30세가량의 남자3명이 택시를 타려면 승객에게 접근, 『우리들이 먼저 택시를 잡았다』며 시비를건뒤, 안창따기수법으로 택시승객의 지갑을 훔치는 것을 보고 이들을 붙잡으려다 범인들이 휘두른 길이 20㎝가량의 이발용 면도칼에 배와 손목등을 크게 다친것.

조씨가 범인들과 난투극을 벌이는 동안 근처에는 20여명의 시민들이 이를 목격하고 있었으나 범인들이 화신백화점쪽으로 달아나자 그때서야 『도둑잡아라』며 달려들었다는 것이다.

말다툼끝은 부부음독사

▲29일밤0시50분께 서울강남구청담동산29의3 광미장여관 203호실에서 투숙객 李守雨씨(34·상업·서울 성동구자양동264의2)와 李씨의 부인 朴鳳心씨(33)가 극약을 먹고 신음중인것을 종업원 吳永圭씨(21)가 발견, 인근 영동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종업원 吳씨에 따르면 전날인 28일하오7시50분께 朴여인이 혼자 투숙한뒤 밤11시께 李씨가 찾아와 함께 투숙했었는데 2시간쯤 뒤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李씨는 엎드려 있었고 朴여인은 방문에 기대채 신음하고 있었다는것.

가족들에 따르면 6년전 결혼한 이들은 1남2녀를 두고있는데 최근 부인의 외출이 잦아 자주 말다툼을 해오던중 지난5일 가출, 28일밤10시45분께 전화를 걸어 남편을 불러내었다는것.

경찰은 현장에서 『나는 먼저 갑니다』라는 내용의 朴여인이 남편앞으로 보내는 유서를 발견, 이들이 동반자살하게된 경위를 캐고있다.

▲공공요금을 내기위해 우체국에 찾아 갔던 주민들에게 창구담당직원들이 퇴근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되돌려보낸뒤 가산금을 물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28일 京畿도 驪州읍내 주민들에 따르면 토요일이었던 지난23일 전화요금납기마감일을 맞아 우체국으로 10월분 전화요금을 내러갔던 여주읍홍문리 金모씨(32)등 10여명의 주민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하오3시께가 되자 『토요일인데 우리도 퇴근해야하니 더이상 수납업무를 취급할수없다』는 창구직원의 수납거절로 요금을 못내고 되돌아 갔다는것.

그런데 월요일인 25일 요금을 내러가자 『납기가 지났다』며 10%의 가산금을 요구해 시비끝에 물었다는 것.

이에대해 여주우체국측은 『23일상오에만도 2천여건의 수납업무를 취급했는데 하오3시께는 직원들이 일일보고서를 작성키위해 일부 이용객을 되돌려 보낸 것같다』고 밝혔다.

<정리=劉升濂기자>

가족과 함께 두뇌 체조를

뉴스 낱말 풀이 퀴즈

<제31회 퀴즈>

1		2	■	3		4
	■	5	6		■	
7	8	■		■	9	
■	10		■	11		■
12		■	13	■	14	15
	■	16		17	■	
18			■	19		

<힌 트>

■가로

1. 한창 시끌시끌했던 경제정책
3. 인간보다 낫다고 떠들썩했던 가축
5. 문경 근처에 있는 온천
7. 녹음과 편집이 끝난 대사
9. 스스로 자신을 억제
10. 표류기로 유명
11.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
12. 부처님앞에 맑은 물을 떠놓는 그릇
14. 프랑스의 후기인상파 화가
16. 이곳서 제9회 아시아대회가 열린다지요
18. 여름철이면 가자고 온 가족이 졸라댄다
19. 작은 털을 깎아내 빛을 내는 기계

■세로

1. 원통속에서 피스톤이 왕복운동
2. 제삿상에 오르는 음식
3. 이말 들어 좋아할 사람 없을걸…
4. 연리, 월리, 그리고 일수의 총칭
6. 야구용어, 힌트
8. 지구의 북반구가 얼음으로 덮였을 때
9.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12. 섬이 많아 붙여진 바다이름
13. 패션쇼의 주인공이라고 할까
15.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
16. 맨해턴, 할렘, 유엔본부
17. 페루의 수도

■뉴스낱말풀이 퀴즈正答 <제31회>

실	명	제	■	바	둑	이
린	■	수	안	보	■	자
더	빙	■	타	■	자	율
■	하	멜	■	여	명	■
다	기	■	모	■	고	갱
도	■	뉴	델	리	■	년
해	수	욕	■	마	사	기

숨은그림 찾기

오성과 한음

오성과 한음은 조선 선조때의 공신으로 오성은 조선 13대 임금인 명종 때 이조판서 이몽량의 아들로 태어났고, 한음은 지중추부사 이민성의 아들로 태어났다. 오성의 이름은 이항복이고 자(字)는 자상(子常), 호는 백사(白沙)이며, 후에 오성부원군이라는 벼슬에 올라 흔히 오성이라 불렀다. 한음의 이름은 이덕형이고 자는 명보(明甫)이며, 한음은 그의 호이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여러 재담과 슬기로움을 익히 우리는 알고 있는 터이다. 그중에서도 한음의 부인이 볼거리를 앓아 볼과 목이 부어 앓고 있을 때였다. 오성은 한음의 부인에게 남편이 신다 버린 미투리를 물에 삶아 그 물에 볼을 씻고 미투리를 볼에 싸매고 있으면 낫는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이 말을 믿은 한음의 부인은 그말에 따라 미투리를 볼에 싸매고 누워 있다 되려 부군 한음에게 들켜 버렸다. 냄새 나는 미투리를 볼에싸맨 모습이라니… 하하하하.

<[illegible]에서>

■숨은 그림

사과 반쪽, 은행잎, 밥한 톨, 금붕어, 물음표, 잉어, 부엉이 머리, 새우, 나팔꽃 두 송이, 나비, 앵무새, 펭귄

구성 장태산

82년도 인벤토리 스페샬

KAWAI PIANO·ORGAN 대매출!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이 기회를 꼭!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 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 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해외화제 海外話題

마약밀매혐의로 하루아침에 망한 "모든것을 다 가진 사나이"

車재벌 딜로런의 神話

자동차공장 기능공으로 출발한 존·Z·딜로런은 소유하고 싶은 것은 모두 소유한 사람이었다. 47세에 미국최대의 자동차회사인 제너럴 모터즈의 촉망받는 부사장으로 연봉 50만달러를 받았고 모델출신의 아름다운부인, 귀여운 자녀와 함께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았다. 그는 1백90㎝의 훤칠한 키에 은발의 멋장이로 캔디스·버겐, 낸시·시내트러 등 유명배우들과의 염문으로 신문가십란에도 자주 등장했던 미국형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성질이 급한 그는 지난 73년에 영국에 최신형 스포츠카공장을 세우고 야심만만하게 독립했으나 10년만에 파산, 지난 19일 마약밀매협의로 체포됨으로써 신화는 깨지고 우상은 부서졌다.

기능공으로 출발… 47세에 GM社 부사장
호화저택서 모델출신 美貌의 부인과 생활

■회사구하려고 마약밀매

딜로런(57)은 마약취급의 마지막 단계인 밀매업자와의 가격흥정과정에서 체포되었다. 일이 성사되면 딜로런에게는 모두 6천만달러가 남게될 판이었다.

딜로런은 다음날 수갑이 채워져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으로 송치되었다. 얼굴은 수염으로 덥수룩한데다 창백했고 은빛머리는 헝클어진 채 시선은 앞을 멍하니 향하고 있었고 좀처럼 입을 열려고 하지않았다.

수사당국에 의하면 딜로런이 수사망에 걸려든 것은 지난 3월. 한익명의 제보자가 로스앤젤레스 근처의 벤투라카운티 경찰국으로 전화를 걸어 남자 두명이 거액의 돈을 전네주는 문제를 토론하더라는 얘기를 했다.

수사관은 이야기를 나누던 두사람 중 한명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남자는 서너명의 중개자를 거쳐 모건 항공기수리점을 경영하며 캘리포니아지역 최대의 마약밀매업자로 감시를 받고있던 윌리엄·모건·헤트릭과 접촉했다.

수사당국은 마약수사요원을 마약밀매업자로 위장시켜 딜로런에게 접근시키는 함정수사를 폈다.

회사가 파산 일보전에 있던 딜로런은 헤트릭과 관계를 맺고있다는 가짜마약밀매업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거래했다.

딜로런은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서 싯가 2천4백만달러의 코카인 1백㎏을 입수하여 처분하려다 체포됐다.

딜로런은 마약거래에서 6천만달러를 번 뒤에 그 가짜마약밀매업자에게 회사운영권의 절반을 양도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딜로런은 지난 18일 영국 BBC방송과의 한 인터뷰에서 필요한 긴급운영자금 4천만달러 중 1천만달러를 48시간내에 마련하겠다고 선언했었다.

그가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긴급운영자금은 출처가 마약거래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가 파산함에 따라 그의 회사 종업원 2만6천명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다.

너무나 지적이고 막대한 재산 사랑스런 부인과 아이들 그리고 대체로 좋은 평판이 나있는 사람이 어떻게 마약밀매업자로 변신하게 되었을까.

가장 그를 동정하는 친구들은 델로런이 자기회사를 구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한다.

델로런자동차 회사의 공보를 담당했던 마이크·네퍼는 『절망한 사람이 저지른 절망적인 사건』이라면서 『델로런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하늘과 땅이라도 옮겼을 것이다. 회사는 그의 분신이었으니까』라고 설명하고 있다.

73년엔 英國에 최신형 스포츠카工場 세워
캔디스·버겐 낸시·시내트러 어술라·안드레스등 女優들과 염문

◇모든 것을 다 가졌던 황금의 사나이 딜로런이 체포됐다.

■자칭「거리의 아이」

디트로이트시 공장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델로런은 자칭「거리의 아이」였다. 그의 아버지는 술주정꾼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으나 그는 어려서 교회를 착실히 다녔다.

젊어서는 댄스홀 밴드에서 색서폰을 연주해주고 그 수입으로 대학을 다녔다. 밴드수입만으로는 학비조달이 어렵자 크라이슬러 자동차회사와 패캐드 자동차회사등을 전전하며 절약한 돈으로 학업을 마쳐 공학사와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후 델로런은 제너럴 모터즈社 폰티악 담당부서에서 기술자로 일하게 되었다. 젊은 델로런은 단시일내에수석기술자가 되었고 또다시 폰티악담당 총지배인이 되었다.

60년대말 그가 총지배인으로 활약할 때 폰티악판매고는 급상승했고 그는 보상으로 시보레부문의 운영까지 맡게됐다.

델로런은 폰티악부를 총지배인으로 출할 때 판매와 기계공학, 마케팅 분야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이익을 증가시켰다.

■2만5천弗 갈매기翔車

그는 이어 국내부문의 승용차와 트럭을 총책임지는 GM社부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GM사나 델로런 모두에게 잘 맞는 직함은 아니었다.

델로런은 차라리 어느 부문의 총지배인으로서 현장에서 뛰는 편을 원했지 GM사 전통의 숨막히는 분위기 속 높은 지위에서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리고 GM사의 최고경영진들로 전통을 무시하는 델로런에게서 점차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델로런은 머리를 짙게 기르고 사무실에서도 패션모델 같은 옷차림을 했고 부인과 이혼한 뒤, 어슐라·안드레스, 낸시·시내트러 같은 유명여배우들과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했다.

그가 두번째 부인인 켈리·하몬과 결혼해서 과외의 [illegible]에 정착할 때까지도 나쁜 평판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두번째 부인은 전에 미시간축구팀의 유명선수 톰·하몬의 딸로 나이는 델로런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4년뒤 델로런은 GM사를 떠났다. 그뒤 그는 『쾌청한날에는 제너럴 모터즈社가 보인다』는 GM사에 반감을 나타내는 책을 발행하는데도 협조해서 주위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는 그 책에서 GM사는 「이름만의 히피」인 자기같은 사람에겐 발붙일 곳이 없는 느리고 때로는 부도덕한 괴물처럼 그리고 있다.

그러나 그때 곧 그는 자기 이름을 따서 델로런자동차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그 회사는 아마도 처음부터 망할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첫째 문제는 자금이었다. 개인투자가들이 몸을 사리자 그는 영국정부의 지원을 얻기로 했다. 그는 영국정부를 설득해서 실업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북아일랜드에 공장을 설립하고 영국정부로부터는 1억3천5백만달러의 재정지원을 받아냈다.

苦學으로 대학 다녀 工學士·경영學士 학위 취득
불경기로 破産부채질… 自己過信도 큰 이유

그는 나머지 자금은 자기의 미국인 거래인들에게 각자 2만5천달러씩 출자토록해서 충당했다.

델로런은 스포츠카를 생산하는데 기제공법, 차의 스타일, 마케팅문제면에서 처음에 몇가지 계속적인 실수를 했다. 그는 갈매기날개 모양의 문이 달리고 값이 2만5천달러인 스테인리스제 차를 생산키로 결정했다.

갈매기날개모양의 문은 공법상의 결함이 있었고 스테인리스강철은 색이 단조로왔으며 2만5천달러라는 가격은 구매자들이 다른 일급스포츠카쪽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비싼 값이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델로런의 자기과신이었다. 다른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연간예상매출대수가 3~4천에 불과했는데 그는 연간 2만대를 생산하도록 지시했다.

GM사 같은 대기업출신인 그로서는 그런 미미한 수준으로 기업규모가 떨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의 측근들은 말한다.

1년전 그의 차들이 첫선을 보였을때까지도 판매는 고무적이었다. 델로런에게 투자한 유명한 사회자 조니·카슨등 다른 연예계 친구들이 2만5천달러에 차를 사들임으로써 출발의 팡파르는 높이 울렸고 일반의 관심도 높아갔다. 그러나 불행히도 불경기가 불어닥치고 있었다.

문제점들이 가속화되어 나타나고 델로런자동차회사는 산업전선에서 한발 두발 후퇴해야했다.

결정타를 맞은것은 지난2월 영국정부가 이 회사를 파산직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영국정부가 직접 재산관리를 하게될 때였다.

영국국회는 델로런과 영국정부의 관계가 개입되었는가를 알아보기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하원 산업위원회의장 미카엘·크릴즈의원은 『세금을 낸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배후에 있을 수 있는 주의의무의 태만을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벼르고있다.

델로런이 정식기소되자 아이로니컬하게도 스포츠카 「델로런」은 자꾸 값이 뛰고 있다. 자동차수집가들이 벌써부터 희귀품으로 모으기 시작한것이다. 【뉴스위크誌·타임誌】

讀者 페이지

■投稿환영

<공처가 신체 가운데서 가장 많이 닳는곳>
손바닥과 무르팍.
김말봉 (土月文友會·울산한시떡시 8515)

<우리 마누라>
항상 맹숭맹숭한 얼굴을 좋아한다.
—어느 주당—
도사 (한국낙서회)

<急賣>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수있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평균 36도C 섭씨의 안고 자는 난로가 있습니다.
—노씨댁 처녀—
皮博 (土月文友會·韓心海씨 입회 환영)

<작전 변경>
시간끌기 폐지하고 녹아 떨어지도록 술먹이기로.
—플레이 보이—
하명민 (대도공업사)

<굶어 죽으라는 법은 없더군>
하품하는데 하루살이가 입속으로 날아들어온걸 보면.
김도원 (土月文友會·서울용산구보광동264의72)

지금 웃는중 落書

<요즘 사람들>
이발도 고급 이쑤시개로 쑤셔야 직성이 풀린다.
원철연 (유머작가)

★<名 言>
노총각 많은데 처녀 없고, 노처녀 많은데 총각 없다.
韓心海 (서울 중구 주교동 176의3 흥인미싱내)

<술꾼은 홍시감>
술에 취해서 말랑게 익어가지고 갈봄새들 쪽쪽 쪼긴다.
곰방대 (화양동사무소입구 골목안 OB시음장·낙서대회 작품전시)

<나라와 음식은 달라도>
화장실 가기는 똑같다.
김선형 (土月文友會·편집장)

<카사노바>
「카」…카랑카랑하게,
「사」…사랑만을,
「노」…노래하는
「바」…바로 그런 사랑
권철연

구독신청
월~토
☎ 533—2361

Turtle Mother of Pearl Inc.

거북이
나전칠기공예사

각종 자개제품이 클링턴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뚜벅 뚜벅 끈기있고 천천히, 열심히, 꾸준히, 성실하게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코저 걷고 있읍니다.

취급품목 : 각종 자개제품 일절
생산부 : ○커피테이블
○보석함
○구절판
○꽃 병
○자개벽걸이
○문 갑
○애기장 등등…소품부터 대품에 이르기까지
수선부 : 각종자개제품 수선일체 (Insurance Work)

★ 특별주문 환영합니다 ★
공장 : 361 Clinton St. Tor. Ont. M6G 2Y7
☎ : (416)530—4364, 536—8018
대표 이 정 석

임시총회
소집공고

토론토지구 한인회 83·84년도 회장단 단일후보에 대해 회칙 8조2항에 의거 인준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회원들께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총회에는 82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이 입장이 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시: 1982년 11월27일 하오2시정각
장소: 한인회관(20 Mobile Dr, Tor, Ont.)

1982년 11월 12일
토론토지구한인회
회장직무대행 부회장 고순복

1983—1984년도
토론토지구한인회
회장단입후보
등록공고

1982년 10월27일자로 하기 한인회장단 입후보자의 입후보등록을 회칙 28조4항에 의거 필 하였음을 공고함.

◉회장입후보: 장순채
(49세, 전남대농대, 아리랑식당경영)
◉부회장입후보: 이기훈
(43세, 경희대졸업, 무나미트로피 경영)
◉부회장입후보: 변의섭
(37세, 한양대졸업, 하드웨어경영)

1982년 11월 12일
한인회 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De 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¼ carat Solitaire
Reg. $1000
Special $749

이태리산 Herringbone CHAIN SPECIAL
□16인치 $135
□18인치 $150
□20인치 $165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울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 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693 Bloor St. W 전화: 535-9541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홍콩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757-6334 Mr.최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일요일(오후4시부터) 쇼핑은 25불 할인받는 삼복식품으로 오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운전 개인지도, 서쪽 끝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 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Professional Inventory
◉모든 Store인수, 인계 일절처리.
Inventory Service of Canada
전화 : 665-8300 Nick.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힌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먹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충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구함.
전화 : 368-2819 Mr. 왕

도넛숍에서 일할 여자분. 주중과 주말.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4-9325

〈오토바디숍 헬퍼 구함〉
-자동차 일에 취미 가진 남자.
-주 40시간(년봉: 1만~1만2천불)
-학교에 보내 라이센스 받을 때까지 트레이닝 코스를 밟게 함.
전화 : 533-8507, 8508 Mr. 람

밀크스토아 메니저 구함.(오타와 지역)
약간의 보증금. 유경험자 우대함.
전화: 624-5817(토론토)

도너스 가게서 일할 파트타임 여학생 구함.
다운타운 소재.
전화 : 222-3877

씨알학교에서 서쪽버스를 운전할 분과 태권도 선생님을 급히 찾읍니다. 겸하시면 더욱 환영합니다.
전화 : 960 -0074

그로서리 스토아 캐쉬어 구함.
남·녀 불문. 파트타임.
전화 : 691-3666

일요일만 일할 여자 캐쉬어 구함
12시~8시까지
전화 : 921-0624

입주하셔서 두 아기 봐주실분 구함.
(5살, 1살)
전화 : 447-1460

5년 경력있는 Auto body man구함.
좋은 보수와 좋은 컴미숀. 좋은 주위환경
깨끗하고 좋은 Shop.
35 Primrose Ave. Tor.
전화 : 533-8507 Mr. Lam(람)

버라이어티 스토아 메니저 구함
유경험자 우대함
전화 : 783-0134

공장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풀타임.(Markham & Hwy 401)
전화 : 438-0380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533-2361

구 직

스카브로지역 가게에서 일할
Cashier 또는 Helper 필요하신분
(17세, 19세 여학생임) 전화 : 291-4547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6-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1622

교민단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3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명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전화: 243-7757(저녁7시 이후)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원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매 매

그로서리 가게와 빌딩 매매
토론토서 20마일 북쪽. 아스킹: $155,000+스탁
물게지 가능. 전화 : 1-939-2341 Mr. 조

조그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Lottario 머신있음.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266-5715

재봉틀 Simpson's 나무책상포함 ◉$195.00
Good-Condition.
전화: 767-1702 김(오후6시 이후)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몬트리얼 지역
주매상: $12,000 렌트: $750 아스킹: $120,000+스탁
전화 : (514)366-8393 Mr. Plante

잘 꾸며진 레스토랑 매매. Yonge & St.Clair
200좌석. 좋은 리스. 빌딩과 붙었음.
전화 : 924-1435 Jim or Louis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도넛숍 매매.
서쪽끝에 빠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
주매상: $3,500이상 보장. 리스: 13년. 아스킹: $119,000
주인은 레바논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꼭 팔아야함.
도나스 만드는 것은 주인이 추레인 시킴.
전화: 596-8170(B), 447-4585(R) Andrew Lee.

스토어 매매. 이층에 살림집 있음.
주매상: $3,500이상. Video머신, 로타리오 머신에서
월 1,000불이상 수입. 전화 : 1-383-8232(Hamilton)

빌딩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116 Dawes Rd.(Victoria Pk)
전화 : 691-3333 Gus or Frank

우체국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3,000.이상. 아스킹: $15,000+스탁. ★우체국이 있으므로 이민자나 시민권자에 한함. ◉전화: 691-5297 Mr. Gilbert.

세탁소 매매(pick-up) Almar Cleaners
640 Rogers Rd.(at two block west of Keele)
전화 : 653-6336, 598-4327

비데오 아케이드 매매
아스킹: $20,000 리스: 4년+3년
전화 : 691-8337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살림집 포함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많은 권리금 기대하지 않음.
-G.M.회사에서 가까운 바쁜 거리.
230 ONTARIO ST.(전화: 1-685-58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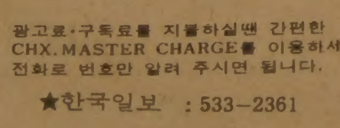
● Smoke & Gift shop
주6일 open 주매상 6,500~7,000
리스 1990년 렌트 1,100(2층아파트 포함)
● Coffee & Snack shop Shopping mall내
6일(open) 주매상 10,000 리스 4년+5년 Option.
● 드라이 크리닝 다운타운 고급주택가에 위치함.
주매상 3,000불 렌트 1,000불 리스 9년
● 도낫스 주 9,000불 리스 15년
A.E.-LE PAGE Real Estate 전화: 741-9170 Mrs. 우.

2 Door 팜 쿨러 팝니다.
Good Condition 가격 : $350.-
전화 : 245-0711

가게렌트 또는 빌딩 팝니다.
Dawes Rd. & Victoria Pk. Ave.
전화: 461-5386 저녁7시~10시.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셋방(1층 Flat)-1Bedroom Apt. 다운타운지역
차고·세탁기·히팅등 포함 월 $430
독신자 또는 부부. Christie×Dupont(532-9581)

4 Bed Rm. House전체를 세놓고자 함(Brampton지역)
2Bath Rm. Family Rm. Fire Place차고등.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전화: 593-8943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진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렌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손꽃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렌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케네디 꽃집
○각종 Arrangement. ○Plant. 화환.
○주문배달. ○꽃도산매.
2196, 2252-4 Bloor St. W.
전화: 762-1572, 762-9854 김웅일.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킵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 0628(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조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 279-7774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시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훈모 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덕이)
전화 : 741-9170

이대환 부동산
전화 : 535-1251

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병헌

사무용구및 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한칼라현상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촬영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한국비데오센타

678 BLOOR ST. ✆ 532-0210 B) 826-5118 R)

손 병 헌

새로운 비데오 테잎
대 량 입 하

－고교야구결승, 서울국제탁구대회 ⊙친구야 친구 ⊙전택보
－외국영화 ⊙코리아환상곡 ⊙천생연분

연말
스페샬

ALL 비데오
CARTRIDGE
15% OFF

ATARI

$259-

가족을 위한
게임머신
스페샬

SANYO 비데오, T.V 및 각종 전화기
특별세일

TH 1010
Cordless Extension Phone

◎기다릴때 음악이 나옵니다.
(WITH NO.11 AND 22
MEMORY DIALER AND ♪
MELODY ON HOLD)